

이 수 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
된 '나이듦'에 관한 연구

- 40~50대 수도권지역 내 기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천 명 자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 된 '나이들'에 관한 연구

- 40~50대 수도권지역 내 기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수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천 명 자

인 준 서

천명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담론화 된 '나이듦'의 의미를 여성의 경험으로 재개념화 하고자 한다. 여성의 목소리로 담론을 드러내고 젠더화 된 '나이듦'의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개인은 상상력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담론을 재구성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어 의미화 되는 것으로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구성하지 않는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도 주체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동일한 나이대의 동일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정해진 삶을 살아가도록 시스템화 된 사회는 각기 다르게 조건 지워진 여성들의 삶을 배제하고 단일한 것으로 '여성'을 범주화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나이듦'은 자신의 구체적 맥락에서의 '경험'과 '기억'으로 체화된 것이다. 여성들이 위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이듦'에 대한 의미화가 구성된다. 여성들의 경험은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담론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여성의 '나이듦'이 부정적으로 담론화 된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나이듦'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경험을 가지며 경험을 통해 주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젠더화 된 '나이듦'으로 구성되고 있는 '중년여성' 담론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든다'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행적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이'의 파악은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일상적인 삶에 작용하는 통제수단이 되었다. '나이'에 따라 시스템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인생과업을 나누

며 개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은 일생을 '나이듦'의 경계에서 '나이대'에 맞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듦'에 따라 세대를 범주화하고 각 세대에 맞는 '적합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통제 전략이다. '나이듦'의 범주화는 '정상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삶에 자연화 되었다. '평범한', '정상적'이라는 규범화의 전략은 '다르게' 상상하는 삶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에게 작동하면서 다르게 구성되는 삶의 맥락들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나이듦'을 '자본화'한다. 여성의 몸은 '젊고 건강한' 것으로만 존재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 미디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여성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이듦'은 소비시장의 전략으로 아주 유효하다. 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늙음'과 '젊음'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되었다. 여성의 '나이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동안 '젊은' 여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지운다.

셋째, '중년여성' 담론은 '나이듦'을 범주화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전략적 의도로 구성된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듦'의 범주화의 맥락으로 담론화 된 '중년여성' 담론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담론화 된 것이다. '중년여성'을 대표하는 '빈둥지 증후군', '폐경' 등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유체'로 존재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몸 관리'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그리 넉넉치 않다.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부정적으로 담론화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 담론은 각 주체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맥락들을 은폐한다.

넷째, 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 여성의 '나이듦'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여성들의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비전 없는 미래'를 맞게 될 위기에 놓이도록 하는 결핍된 사회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가부장제 권력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 수단이 됨을 확인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몸을 통해 체화하며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늙음'을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 몸이 아닌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로 시스템화 된 한국사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듦'은 '나이 들어버린' 어떤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성애적 결혼제도에서 '정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나이듦'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제도 밖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는 것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맥락화 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상성'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를 갖는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족제도' 안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조건'을 드러내고 '나이듦'을 새롭게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6
II. 이론적 배경	13
A.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주의 이데올로기	13
1. 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 '나이듦'의 규범화	13
2. 연령차별주의	17
B. 육체자본화 된 여성의 '나이듦'	22
1. '중년여성' 담론: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	23
2. '맞춤육체'로서의 여성의 '나이듦'	27
III. 생애주기 연령주의 정치학	33
A. '삶의 주기' 안에서 본 여성의 '나이듦'	33
1. 연령주의의 일상화: '나이에 걸맞게' 서바이벌하기	33
2. 체화된 경험으로서 '나이듦'의 의미: '나이듦'을 의미화 하는 맥락들	38
B. 계급화 된 육체자본	45
1. '나이듦': '누구'에게만 문제인가	46
2. 몸 프로젝트: '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 권력	51

IV. 구체적 삶의 맥락에서 여성의 '나이듦'	57
A. '소통'으로서의 '나이듦'	57
1. '자아상': '삶의 반추'로서의 '나이듦'	58
2. 구체적 '삶의 조건'에서의 '나이듦'	64
B. 담론의 경계에서 '중년여성'으로 '통'하기	69
1. '중년여성' 담론: '누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70
2. '중년여성'은 우울하다?: '중년'으로 '통'하기	74
C. '나이듦'의 재개념화	81
1. '나이듦'에 대해 긍정하기 그리고 말하기	81
2. '나이듦'의 재개념화	85
 V. 결 론	 89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는 일상적으로 ‘나이’를 묻는다. 이성애 사회에서 상대방의 젠더를 알지 못하면 공포를 갖는 것처럼, 연령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빠르게 파악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사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행적으로 체화되는 위계주의적 사회의 산물로 구성되어 왔다. 자발적으로 ‘나이듦’의 위계를 수행하면서 누구나 당연하게 ‘나이’로 인한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생애동안 경험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일생을 결정짓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는 각 연령대를 범주화하여 나이에 맞는 역할과 규범을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보편적 삶’을 살도록 강제한다. 일상화된 ‘나이듦’의 범주화는 다양한 삶의 맥락에 위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상상하기 힘들게 한다. ‘보편적 삶’이라는 일관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 ‘~다워야’ 한다는 신화는 정해진 규범과 역할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을 모델로 한 생애주기 가설은 교육체계와

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나이(age)’와 ‘나이듦(aging)’을 구분해서 쓰려한다. 맥락에 따라 같은 의미로 통용될 수 있겠으나 ‘나이’가 아닌 ‘나이듦(aging)’으로 쓰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은 단절되고 단일한 ‘물리적인 시간’에 고정된 주체로 ‘나이듦’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삶의 과정‘중’에 자신의 삶과 ‘나이듦’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김은실(2001)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몸의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 과거와의 불연속을 매일 생산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장치들 속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가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일상에서 모호한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본다. 김은실,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을 제의하며”,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2001), p. 42.

노동시장 등에서 여성들이 제한적으로 역할을 배정받게 한다.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²⁾는 여성을 사적인 사회관계에 놓이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애를 20 ~ 30대에는 결혼·출산·양육으로, 40대에는 가족성원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역할로 규범화되면서 여성들은 평생을 딸, 엄마, 아내라는 성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역할로 규정지어진 여성들의 삶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³⁾을 배제한다. 어떤 특정한 나이에 맞는 몸을 규정하는 남성중심의 규범은 일상적으로 여성들에게 체화된다. 이에 ‘~다움’의 규범이 지배하는 남성 생애주기 사회에서 구조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듦’은 곧 ‘늙음’이다. ‘젊음’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늙음’과 ‘젊음’의 이분법을 만들고 자원배분으로서의 위계를 가른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젊고 건강한’ 것으로서의 ‘여성성’은 ‘젊은’ 여성들도 ‘나이듦’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하면서 세대간/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나이듦’에 대해 갈등하고 저항하게 한다. 그러나 20대에 가지고 있는 ‘젊

2) “고대 세계에서 가족경제의 사적 공간은 궁핍과 결핍의 영역이었던 반면, 시민들의 공적 영역은 자유와 동일시되었다. 가정이란 사적 영역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존재들(노예와 여성들)에 의한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연관되었다. 개인적 자유가 하나의 가치로 신장되는 데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정 단위의 생산적 기능을 멈추게 한 가정과 경제의 제도적 분리,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개인의 공적 생활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거대한 관료의 발달이 전제된다. 자본주의적 산업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그리고 국민국가의 연합은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의 구분이 부상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제공했다. 근대사회에서 이 구분의 주요한 측면은 사적 공간이 특히 몸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생산, 사회화, 노동력 제공처럼- 존재하는 가정의 친밀성과 정서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성·중립성·형식성과 객관성은 사적 가정에서의 특정성·정서성·비형식성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었다.” 브라이언 터너(임인숙 역), 『몸과 사회』, (몸과 마음, 2002), p. 135.

3) “경험은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차이와 유사성을 성립시키고,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경험은 이미 해석인 동시에 해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경험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명한 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경쟁적이고, 따라서 정치적이다. 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여성의 경험은 이미 담론에 대한 해석이고 담론이다. 우리는 담론을 통해 주체들을 위치시키고, 주체들의 경험을 생산하는 역사적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험은 우리들의 설명의 기원, 즉 어떤 지식이 생산되는가에 대한 증거이다.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체성들을 역사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역사화는 문제화되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실천의 토대라고 주장했던 많은 동시대의 역사가들에 대한 대답을 나타낸다. 역사화는 경험을 포함하여 당연한 것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모든 설명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함의한다.” Scott, Joan W.(1992), "Experience", Judith Butler & Joan W. scott (Eds), *Feminist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노후'와 '죽음'에 대해 '예상하지 못함'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도 하지만 늙는다는 것을 부정하게도 만든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정확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20대의 '젊은 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지속되어 온 삶의 조건과 상황을 확인하고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내 온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성의 '나이듦'을 들어본다는 것은 여성들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며 그 이야기는 곧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왜 여성의 '나이듦'이 '늙음'과 같은 의미로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나이듦'에 따른 범주화의 맥락으로 '중년여성' 담론이 존재한다. 생애주기로 가설화 된 개인의 삶은 '나이'에 따라 삶의 과업이 구성된다. 특히, 인생의 중간이라는 '중년'은 한국 사회에서 유독 특징적으로 담론화 된 생애주기 가설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여성' 담론은 남성중심 규범에서 여성의 '나이'가 어떻게 젠더화 되어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젊음'을 가치 지향하는 사회는 '젊은 몸'을 욕망하며 여성은 '젊고 건강한 여성'이거나 '어머니'로 존재한다. '나이든' 여성들 스스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젊은 몸'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은 '나이듦'의 경계를 만듦으로써 여성들을 생애동안 '늙지 않는' 여성이 되도록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대의 범주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주화는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성들을 단일한 '여성'들로 묶어내면서 다양하고 특수한 여성들의 경험과 맥락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정상화'된 '나이듦'의 규범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나이듦'에 대한 경험들을 획일적인 것으로 만든다. 여성의 삶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중년'이란 범주화로 축소화하여 여성들의 다층적인 경험들을 은폐한다. 과연 누가 '중년여성'인가.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른 '중년여성'의 범주화는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 가부장제가 '중년여성'이란 범주화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

'중년여성' 담론은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젊거나 혹은 '늙은 여성'이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삶의 기제이다. 이는 미디어 권력이 뒷받침함

으로써 생산, 유지된다. 미디어는 여성의 '나이듦'을 이용해 광고와 의료산업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몸짱·얼짱4)' 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등은 여성들의 '몸'과 '나이'를 동일시하는 현상으로 여성들은 '나이듦'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경험한다.

미디어는 특화된 '전문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늙음'을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광고들을 접하면서 '늙지 않는' 몸을 욕망한다. 미디어에서 '젊은 몸'으로만 존재하는 여성육체는 개인의 욕망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미디어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지만 '늙음'은 통제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젊은 몸'을 욕망하게 된다.

그러나 욕망하는 여성들이 모두 '젊음'을 취할 수는 없다. '나이'라는 것은 계층, 계급, 성별 등 삶의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나이듦'은 보통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별과 계급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제도이다(정희진, 2005). 특히, 상대적으로 자원과 권력이 없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평생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가 힘든 여성들은 '나이듦'에 대한 체화가 적극적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여성들의 나이 들어'감'이 곧 사회적 약자로서 계급화 되어가는 것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젠더화 된 '나이듦'은 여성들의 생애5)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나이듦'을 체화하고 의미화하고 있는지 간과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과 다르게 생애주기화 되는 여성들의 '삶', '나이듦'은 은폐되어

4) 몸짱·얼짱 신드롬은 인터넷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40대의 나이에 20대의 몸을 가진 '몸짱아줌마'의 출현으로 여자 연예인 뿐만 아니라 꽃미남 얼굴에 근육질 몸을 가진 남 연예인들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성공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5) 박성희(2003)는 생애사연구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rekonstruktion of Erfahrungen)은 연속된 발달의 과정이므로 여러 가지의 인생시기의 경험이 축적되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직선상의 발달과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진행중인 삶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나이듦'이 구성되고 있음이다. 박성희, "여성학에서의 질적연구", 『제19차 춘계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 2003).

담론은 생산되고 유지된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정치적이고 성별화 되어(gendered) 있는 여성들의 '나이들'을 여성의 목소리로 언어화하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는 '평범한' 여성들의 '구체적' 행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내가 만나는 사십대 여성들은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다만 나이보다 젊고 늙어 보임, 내 나이를 남이 어떻게 여기는지 등 남들의 반응에 예민하다. 나이 때문에 나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목가에 주름이, 유행이라 입고 싶은 디자인의 옷을 채형 때문에 못 입게 될 때 그때서야 나이를 생각한다. 여성들은 나이보다는 자기 외적 조건- 자신이 속한 외적 환경에 따라 경험의 세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만난 상대에게 나이를 묻기보다 눈치로 대충 짐작하거나 자녀가 몇 학년이냐고 묻는 일이 많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할 생각이 없고, 나이에 따라 경험의 세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생물학적인 나이로 자연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를 살펴보고, 여성들의 '생애'동안 구체적인 '삶의 조건' 안에서 '나이들'의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생물학적 나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젠더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담론화 되고 있는가?

둘째,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들'에 대한 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계급화 되는가? 그 맥락에서 자리하고 있는 '중년여성' 담론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나이들을 '의미화'하는 과정에 어떤

6) 김정명신, "사십대, 나를 지켜보는 나",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2001), p. 123 재인용. 연구자는 '나이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들'을 부정적으로 구조화하는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자 하며 여성들이 '나이들'을 부정/긍정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의 맥락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나이듦'은 여성들의 '구체적 현실'과 '삶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의미화 되는가? '나이듦'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소통의 방식으로 재개념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B.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은' 연구자에게 '나이듦'을 이해하는 맥락을 허락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나이듦'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연령규범'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이었다. '연령규범'에 맞게 살도록 규정지어진 사회에서 연구자는 '젊은이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강요받는다. 즉 '젊은' 세대로 규정되는 연구자는 '젊고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가 '나이듦'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다.

연구자의 주제선택과 고민은 상상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과 '나이듦'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자는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연구자는 세대적 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생물학적인 나이'로 자연화 된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이 자신의 '늙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을 초래할 것이다. '늙음'은 가난한 계층에게만 '위기'로 찾아오는 계급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늙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회가 상정한 '노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듦'을 '늙음'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에서 '나이듦'을 말하는 주체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나이듦'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로 경계지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나이든' 여성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문제를 언어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삶의 '사실'들이 있다. 여성들은 그 경험들에 협상과 저항을 반복하면서 삶을 구성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한다.

이성애적 가부장제의 결혼제도는 여성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결혼해서 오래 살수록, '여성'으로 살아가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한다. 기혼여성들이 흔하게 던지는 "살아봐"라는 말은 그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서 겪은 무수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여성들을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가족의 행복과 불행은 여성의 책임으로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성들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여성들을 둘러싼 삶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능한 '태도'를 취한다.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나이듦'이 단일한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주의는 일상의 전복을 시도한다. 자연스럽게 여겨져 온 일상, 담론에 관해 던지는 의문과 고민이 더 나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여성들의 '언어'에 주목한다. '아줌마'들의 얘기가 흔하게 무시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지나쳐버리는 '수다'는 '정치로서의 말하기'이다. 우리는 이성애적 가부장제 결혼제도를 통해 '정상가족'을

7) "여자들끼리 만나면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부터 시작해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지만, 남자들은 그런 걸 '수다'로, '하등 쓸모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곤 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정치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 생활에 치여 정치 이야기가 시들해진 중년에 이르니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 나름의 고민이 생겨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진지하게 들어줄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인생 다 그렇지 뭐. 그 애긴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 "결국 남자들은 돈을 주고 젊고 예쁜 여자를 부르고, 그들과 더불어 광란의 밤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는 건 공허뿐이고, 다음 달에 날아올 카드대금을 생각하면 한달내내 마음이 무겁다." 『한겨레』, 2006년 3월 23일자. 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시도할 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말 걸기'를 한다. 여성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는 반면, 남성들은 '하찮고 무의미한 것'들이라 이름붙인 것들로 인해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 관계 맺기를 하고

이루며 살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삶을 '예상'한다. 이성애적 가부장제 결혼제도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제들로 여성들의 '삶'을 짐작 가능하게 하면서 결혼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어떤 '자발적 종속'을 하게 되는지 알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감성이라는 이분법은 이성의 영역인 공적 영역을 보살피는 성역할을 여성에게 담당하도록 했다. 여성을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회는 여성들의 언어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의미화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수다'는 공적 영역이 아닌 곳에서 무의미하게 '떠들어대는' 일상적이고 감정적인 말로 간주됐다. 그러나 여성들은 '수다'를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 하는 것으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방법론을 터득한다.

'생물학적 나이'로 자연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 여성의 '말하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여성들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기력한 주체로 서바이벌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나이듦'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경험은 그 위치에서 해석된다. 여성들에게 '나이듦'을 묻는다는 것은 살아온 '시간'을 묻는 것이며, 일상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그것은 곧 여성들의 일상의 정치학을 보는 것이다. 여성이 '나이 들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들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조건'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자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주제를 위해 결국 담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든' 여성들을 만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중년' 담론에서 구성되고 있는 여성들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담론에서 이야기되는 '평범한' 여성들은 실은 허구로 존재한다. 가부장제 소비전략이 대상화하고 담론화 하는 여성들은 '중산층' 여성들이다. 이에 연구자는 담론으로 구성된 '평범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중년'담론 안에서 여성들이

있다.

‘나이듦’을 구성하는 맥락과 함께 담론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의 목소리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론에서 삭제되고 있는 그녀들의 경험을 드러내기로 했다.⁸⁾

연구자는 2006년 9월 2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사는 기혼여성 10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대부분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이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한명을 제외하고는 중졸 혹은 고졸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다. 대부분 20대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4인 핵가족이거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여성들이다. 면접 내용으로 짐작컨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대부분으로 현재 ‘여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심층면접 방법을 택한 이유는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의도, 생각, 감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유용하”(홍용희, 1998)기 때문이다.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의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여성들에게 면접 허락을 받거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져 라포형성이 쉬웠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은 주로 참여자의 집이나 연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카페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녹취를 푼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은 비구조화 된 질문지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애기와 자신이 생각하는 나이듦과 늙음,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 등 삶에 있어 나이듦의 경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들어보고 여성으로 살아온 지난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 질문 내용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원래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가 말하고 있는 도중이나 질문이 끝난 뒤 연구자가 말하고자

8) “여자의 억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성 자체도 체계적으로 표리부동한 일체의 관행들 속에서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케티 콘 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경하 외 12인 편역(한울, 1997), p. 229.

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질문이나 설명은 참여자가 말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참여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해석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말과 연구자의 질문을 함께 인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살아온 '생'을 이야기 하는 것을 반가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또한 중간 중간 연구자에게 "내 말 이해하겠어?"라며 '젊은' 연구자의 이해를 확인하곤 했다. 일상의 '나이듦'을 언어화하는 것이, 낯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나이듦'을 이야기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 면접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곤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로 연구자가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기혼여성들을 인터뷰 한 것은 '이성에 제도'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모두 통합된 사회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평범함'이란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들을 모두 수행해내며 살아감을 의미한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제도 안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온 여성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한 결혼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가부장제 사회의 담론구조를 드러낸다. '정상가족' 시나리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이듦'의 담론화 속에서 연구자는 담론 안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을 들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내뿜을 만한 학력 자본을 갖지 못하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여성들로 우리 사회에서 학력 자본과 '나이듦'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나이듦'과 관련된 문화에 접근하기가 쉽다. '나이듦'에 관한 문화코드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개인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나이듦'은 성, 계급, 지역, 직업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는 개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맥락화 된 '삶의 조건'은 여성들이 삶을 구성하고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나이

늑'을 의미화하는 방식이 다르게 구성된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담론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은 곧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늑'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상황과 특성>⁹⁾

이름 (가명)	나이 (배우자 나이)	학력 (배우자 학력)	직업 (배우자직업)	결혼기 간/결혼 형태	자녀나이	비고
미숙	43(47)	중졸(고졸)	아르바이트(사업)	22년/연 애혼	아들(19), 딸(17)	
수정	46(47)	고졸(고졸)	아르바이트(사업)	20년/연 애혼	아들(20), 아들(17)	시어머니(71), 시동생(43)과 함께 삶
영미	50(54)	고졸(대졸)	애 돌보기 (택시기사)	27년/연 애혼	아들(22) 딸(19)	시어머니(81) 와 함께 삶
은정	46(53)	중졸(중졸)	직장(직장)	27년/연 애혼	아들(26), 딸(24)	딸 결혼함
성순	45(51)	대졸 (박사졸)	아르바이트 (사업)	22년/연 애혼	딸(21), 딸(13)	
진주	46(52)	고졸(고졸)	직장 (개인택시)	25년/연 애혼	딸(25), 아들(24)	딸 결혼함
순이	47(51)	고졸(고졸)	종이접기강사 (택시기사)	24년/중 매혼	딸(24), 아들(21)	
정애	51(53)	고졸(고졸)	옷가게 (직장)	22년/연 애혼	아들(22)	
숙희	57(62)	중졸(고졸)	애 돌보기 (직장)	33년/중 매혼	딸(32) 딸(29) 딸(27) 딸(24) 아들(21)	
혜연	55(61)	중졸(중졸)	직장(직장)	28년/연 애혼	딸(28) 아들(25)	

9)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II. 이론적 배경

A. 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 이데올로기

1. 생애주기(*life-course*)연령주의: '나이듦'의 규범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생애주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시스템화 된다.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화 된 사회 시스템은 개인을 '일정한' 패턴으로 포맷화한다. 개인을 '일정한' 삶으로 규범화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성'의 가치로서이다.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주의는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이듦'을 특정연령그룹에 대한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의 현상인(김소영, 2005) '연령주의(*ageism*)'의 맥락으로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전략이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주의는 '나이'에 따라 개인의 일생을 보편적으로 고정하는 범주화와 함께 각 단계에 맞는 기대규범(*normative expectation*)을 요구한다. 기대규범은 나이에 맞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규범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가장 '무난하게' 존재하는 보편적 삶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주의는 개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일정한 패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일상화 된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주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었고, 그 범주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개인들의 프로젝트는 시작된다.

한국 사회는 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이든' 개인들을 집단화하여 호명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특정한 '통제집단'의 형성과 함께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제집단'을 이질화한다. 생산자와

비생산자를 ‘나이’로 구분하면서 ‘나이든’ 개인의 삶을 결정한다. ‘나이든’ 개인들의 집단화는 ‘나이든’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듦’의 공포를 갖게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성, 계급, 연령, 지역 등)에 놓인 개인들의 경험은 배제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나이듦’은 특정연령집단의 차별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적으로 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된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집중한 Mead(1962)는 규범의 형성과정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전체사회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타인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관찰하고, 그 규칙과 원칙을 수용하여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범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 ‘개인의 규범’은 환원적(feedback)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나간다는 것이다(이금룡, 2005). 정상화 된 ‘나이듦’의 규범은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평균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로의 진입은 ‘평균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적 토대이다. 예를 들어, ‘학령기’, ‘결혼적령기’, ‘취업’은 ‘나이’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반영된 ‘제도’들이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체계에 대한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것은 이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교육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아동기¹⁰⁾가 되면서부터 교육체계에 진입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학령기가 존재하게 되고, 학교체계는 유지된다.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라는 말속에 ‘나이’에 의한 학령기 구분과 세대적 분리가 담겨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나이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거리¹¹⁾는 사회

10) “17세기 이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아이 혹은 어린이(child)라는 관념은 의존이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주인(master)에 대해 의존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종복, 직공, 군인 등이 모두 어린이라고 불려졌다. 예를 들어 장인(master)은 그의 도제에게 “Come along, children, get to work”라고 말했으며, 지휘관은 그의 부하들에게 “Courage, child-ren, stand fast”라고 용기를 북돋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전방에서 위협에 노출된 부대는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린이는 이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다른 많은 연령기의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지 않은 채 그저 섞여 있었다.”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11) “교회(古稀)넘긴 할머니 학사모 쓰다.” “71세 할머니, 관광정보과 졸업생”
 “교회(古稀)를 넘긴 할머니가 대학생활을 마치고 학사모를 썼다. 주인공은 김서운(71.金瑞雲.광

에 내재된 편견을 잘 보여준다. 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장년기에 요구되는 '결혼제도'로의 진입은 성별에 따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분리하고 성역할을 나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갖기'는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생산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는 각종 선발과정과 퇴직에 연령분리를 둠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생애주기(life-course) 연령규범은 개개인의 삶을 세대적 '보편성'안에 위치 지움으로써 세대규범에 맞지 않는 다양한 개인들을 '아웃사이더' 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는다.¹²⁾ 그러나 우리는 다만 '정해진' 규범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뿐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나이듦'에 따른 적합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규범화한다.

그러나 주로 연속적 삶(학령기, 직업기, 노년기)으로 구획된 생애주기(life-course)는 남성을 모델로 구획된 것이다. 남성과 달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생애주기(life-course)는 연속적으로 구획되어진 사회시스템 안에서 분절된 경험을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가족제도에서의 성별분업 등을 경험한다.

윤택림(1996)은 여성의 일상세계는 남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여성 내에서도 그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복잡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본다. 그에 따라 가시적/비가시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주 서구 양동) 할머니. 2003년 전남도립대학인 남도대학 관광정보과에 당당히 합격, 어린 손자뿐 학생들과 2년여 대학생활을 마친 뒤 15일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았다. 매일매일 학교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빼먹지 않고 들어가야 했던 수업도 힘들었지만 '청소하는 할머니야', '손녀따라 왔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입하기 힘들다는 책도 어디서 구했는지, 함께 식당에 가자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준 손자 같은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2년을 버텼다." 『연합뉴스』, www. stoo.com, 2005년 2월 15일자.

12) 각 개인의 "정체성은 나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지위와 그 지위에 결부된 역할에 관한 일련의 정의들로 구성된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정의를 자신을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동일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위로 요약되는 사회적 관계가 '나'라는 주체가 서 있는 자리와 동일하며 역할로 요약되는 규범의 집합이 내가 선택하는 혹은 당위를 간주하는 행동의 집합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동일성이다." 이혜숙, "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 『젠더를 말한다 :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박이정, 2003).

로 경험하는 것과 그 의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여성의 일상세계는 종래의 사적, 공적 영역을 가로질러서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성의 삶의 구조적 조건들과 여성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기존의 사회통념으로 인해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들은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생애단계상 차이는 같은 여성 내에서 이질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조혜선, 2000).

여성의 일생주기는 나이의 다양한 단계(사춘기, 처녀막 파열, 수태, 임신, 출산, 수유, 어머니 노릇, 자녀교육, 갱년기)를 명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사건으로 특징 지워지며(이리가라이, 1996), 체화되는 여성의 불연속적인 경험들은 여성들에게 다른 생애주기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이에 여성들의 생애주기는 여성들이 겪는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¹³⁾

가부장제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경험은 역사적 '시간'¹⁴⁾을 통해 드

13) 인류학에서 초기 여성 생애사 연구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이나 실천적인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남성 인류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여성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비교적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여성 생애사들 중에는 인류학자인 남편의 인류학 현지답사에 동행한 여성들에 의해 기술된 것들이 많다. 이들은 성별분리가 엄격한 조사지에서 남성인류학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여성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여성세계에 대해 남성들이 갖기 쉬운 편견과 오해를 시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생애사는 인간의 삶과 사고에 성(gender)은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이라는 변수에 의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통합되고(unified) 보편적인 역사적 경험은 없다. 특정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는 여성의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각 여성은 단순히 한 특정 사회범주의 성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공존하고 경쟁하는 사회집단과 관계들에서 나오는 독특한(unique) 여성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 ….”(Matthews, 1984). 이 시선은 상호작용을 하는 여성들의 계층, 인종, 연령,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윤형숙, “여성생애사 연구방법론”, 『여성연구』, 제3권 1호, (목표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5).

14) “체험시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진정한 시간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가리키는 그런 것-그것은 약속할 때나 필요한 시간일 뿐이다. 이 아니라, 삶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각자의 인생 체험에 따라 달라지는 질적·상대적 시간이다. 체험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절대적 시간이란 있을 수 없고, 각자의 체험 내용과 각자의 인생행로가 있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문제이다. 인생은 각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2001). 여기서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부장제라는 역사적 토대에서 살아내 온 ‘온전한 힘’으로, 여성들의 단

러난다. 여성들이 '살아온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여성들의 역사적 물질 토대와 각자 여성들이 위치¹⁵⁾한 삶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정치적 그리고 물질적 맥락이 경험을 만들고 통제한다고 제안하며, 여성의 경험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을 특징짓는 계층, 인종, 민족, 젠더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제안한다."(넬슨, 2005).

2. 연령차별주의

연구자가 '나이듦'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노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슈는 '노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¹⁶⁾인구에 주목하고 있다.¹⁷⁾ 그러한 연구들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이

일하지 않은 경험과 삶의 조건에서 겪는 느낌, 생각, 욕망 등을 포함한다.

15) 리치에게서 '위치'란 "지정학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언어로 중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상적 관계들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이, 인종, 계급, 지역 등 모든 사회적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제』,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6) '어르신'이란 말과 고령화사회 해법, "며칠 전 노인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노인들에게 일 자리를 알선하기 위해서 주최한 박람회 명칭은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였다. 많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용어로 노인이나 고령자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호칭의 인플레이션이다. 과거에는 '늙은이'라는 호칭에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젊은이'라는 호칭은 지금도 따뜻하고 친근하게 쓰이는 데 비해서, '늙은이'라는 호칭은 '노인'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다시 '어르신'으로 바뀌고 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원래 쓰던 호칭은 자꾸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어르신'은 느낌이 좋은 우리말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을 권장할 만한 호칭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어르신'을 채용하라고 권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한겨레』, www.hani.co.kr, 2006년 10월 22일자. 사회가 '노인'의 호칭에 부여하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대안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안적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노인'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원래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

17) "고령화 속도 18년...초고령자수 급증, 2030년 노인 부양비용 지금의 3배 추산, 일 할 기회 확대 - 신체적 자립방안 시급.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노인인구가 459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9.5%로 추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716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향후 10여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을 정점으로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인구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령차별주의 이론이다.

연령차별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했던 Butler(1975)는 연령차별을 “마치 피부 색깔이나 성별에 따른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연령차별주의는 노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일련의 차별”로 규정짓는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의 산물인 연령차별주의로 인해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의 연령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이들을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장치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종우, 1999).

연령차별주의는 ‘젊음’/‘늙음’의 이분법에서 나이에 따른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이 든’ 사람들을 ‘노인’이라 호명하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조사한 결과, ‘불친절하다’, ‘무능하다’ 등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⁸⁾ 이는 TV에서 주로 슬프거나 아프거나, 상황이 어려운 노인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 먹음’에 대한 공포가 ‘노인혐오’로 드러나는 것으로, 매체에서 보여지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의식/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편견들이다.

이금룡(2005)은 노년기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분리이론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성원은 중년기 역할체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 혹은 이탈되는데 사회 체제의 유지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은 분리이론과 반대의 입장으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중년기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활동이론을 지향하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인인구의 특징을 말한다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간보사 의학신문』, 2006년 5월 25일자.

18) “늙음=무능’ 도식화 말아야”, 『국제신문』, www.pusannews.co.kr, 2006년 7월 15일자

사회가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활동이 장려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집단이 사회에서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일치한다.

분리이론으로 노인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서 '나이'는 '생산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이듦'은 '일할 수 없음'으로 간주된다. 얼마전 연령제한에 관한 입법예고¹⁹⁾가 있었으나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 구조화 된 노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는 유지될 것이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저서 『노년』에서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태도와 함께 편리하게 노인인구를 어떻게 배제하는지 보여준다. 노인들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사회태도는 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적선을 하고는 스스로 그들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사고방식이 유포시킨 신화들과 상투적인 말들은 노인을 '타인'으로 보여주려고 애쓴다. "젊은이들과 똑같은 욕망, 감정, 요구 등을 표명하는 노인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노인들은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덕에 의해서건 또는 타락에 의해서건, 노인들은 인간이라는 범주밖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것조차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절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보부아르가 보여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제도 전반에 녹아

19) "채용·임금·승진 등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고,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 방안을 담았다." 『부산조은뉴스』, <http://busan.e-goodnews.co.kr>. 2007년 3월 31일자.

20) 시몬드 보부아르, 『노년』, 홍상희·박혜영 옮김(책세상, 1994), pp. 8~59.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사회 산업과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국가경영의 기본질서로 삼는다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Cumming & Henry, 1961).

연령차별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다르게 우리 모두가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늙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여지없이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회는 '나이듦'을 타인의 것으로만 이해하게 하고 노인들을 소외된 집단으로 몰아넣는다.

심리학자 베스톤은 그의 저서 『과도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젊음을 이상화하면서 늙음의 좋은 측면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정말로 젊은 외모와 교환하고 싶은지 어떤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대답은 둘 다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젊음/늙음이라는 이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젊음'을 욕망하는 구조는 바로 이러한 이분법에 근거한다. '늙음'이란 용어는 '젊음'이라는 상대적 개념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 '젊음'의 가치가 이상적일 때 '늙음'의 가치가 하향되는 상황에서 사회는 개인들에게 젊거나 혹은 늙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외모'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노인'들은 미디어에서 칭송의 대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나이든' 노인들을 억압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노인'을 억압하는 현상이다. 노인들에게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늙음'이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여성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이'와 '젠더'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성들을 타자화하는지 분석한다. 여성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여성 노인들은 성별과 나이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체로서의 여성의 존재가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유공순, 2005). 특히, 여성 노인 세대는 남존여비 사상

21) Marta Cullberg Weston, *Overgangen*, (Wahlstrom & Widstrand, 1998).

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노년에는 아들을 따르는 종속적 주체로 살아왔으며 나아가 헌신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아왔다.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출가의인으로 '안주인'의 위치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당하고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편과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온 '생'의 결과가 '빈곤'임을 알게 된다. 현재 여성 노인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남는 것이 빈곤문제²²⁾이다. 여성 노인들은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중층적인 작용으로 계속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다. 주변화 된 노동 시장으로 밀려나는 여성 노인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이해리, 2005). 대부분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 노인의 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이중적 차별기제로 여성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구조화 된 '나이듦'의 범주화가 존재하고 연령규범을 만들어 내면서 이것이 '나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한계짓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임을 드러내지 못한다. 연령차별주의 이론은 '노년'을 범주화하여 '노년'에 적합한 생애를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나이듦'의 범주화를 고정, 유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의 세대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 맥락을 생애주기 연령주의에 따른 '연령규범'으로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여성의 '나이듦'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단지 '나이'에 따른 차별 현상으로서의 '노년'이 아닌, 보편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연령규범'과 '나이듦'의 문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조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다음은 뉴스채널에서 방송 된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내용이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남성은 74.6%에 이르렀지만 여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3%에 그쳤습니다. 대신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는 자녀나 친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해 23.8%에 불과한 남성보다 자녀나 친척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3명 가운데 2명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 50만원 미만이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직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사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노인이 됐을 때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sbs뉴스』, 2006년 8월 17일.

B. 육체자본화 된 여성의 '나이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 현대사회가 여성의 '나이들'과 '늙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연유한다. 여성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 것'을 의미하며, 늙는다는 것은 '젊음'의 '상실'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몸은 언제나 '젊고 건강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써 몸은 언제나 관리의 대상이 된다.

소비사회에서의 몸은 끊임없이 관리하는 '젊고 예쁜 몸'만이 자본권력이 된다. 얼짱·몸짱 시대에 관리하지 않는 '뚱뚱한' 몸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구성원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 된다. 투자하지 않는 몸은 '가치가 없는' 몸이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젊고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유용한 몸'이 될 수 있다. 매력적인 육체를 강조하는 대중문화는 한편에 가정 내 여성역할의 강조와 함께 상품으로서의 젊은 여성의 '몸'을 강조하면서 가정 내 여성들도 '매력적' 육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한다(조옥라, 2001).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는 것은 '여성(women)'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여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의미이다.

비만·다이어트·날씬함에 집착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 날씬함에 대한 관심은 우리 세기의 정상화 메커니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감시하고 훈육하는 '유순한 몸'을 생산해 내며, 이러한 몸은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고, 그 규범에 맞추기 위한 자기 변화와 자기 개선에 익숙하다(보르도, 2003). 날로 커져가는 다이어트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몸 관리라는 이름아래 여성의 몸을 소비시장의 '상품'인 동시에 '소비자'로 위치지우며 여성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미지화 된 몸을 욕망하게 하는 구조로 드러나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분리될 수 없는 '젊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추구한다. 식이요법, 미용술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고, 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성형산업이 완

벽하게 부응함으로써 완성된다. 성형 산업은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다. 게다가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²³⁾

여성의 육체를 조각내어(쳐진 가슴/엉덩이, 늘어진 허벅지, 툭 튀어나온 뺨살, 탄력 없는 팔뚝 등)설명하는 것은 분절화된 여성육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분절화된 여성육체가 ‘자본’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몸을 각 부분에 맞게 조절하고 관리해줘야 하는 것으로 ‘S라인’을 만들어 주는 요가자세, 얼굴을 계란형으로 만드는 법, 손목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 운동법 등 파편화 된 몸을 위한 지침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몸 관리는 ‘시간’과 ‘돈’이 허락하는 계층에게만 가능하다.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이 뚱뚱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노동해야만 하는 계급은 ‘운동할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뚱뚱한 것이다. 여성의 몸은 계급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성의 ‘나이듦’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위기’로 찾아온다.

몸을 육체자본(physical capital)의 형태로 개념화한 부르디외는 몸이 계급의 상징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 아비투스, 취향(taste)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 중 계급에 기초하여 물질적 환경을 지칭하는 사회적 위치는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총량과,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자산들의 상대적 비중, 그리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자산의 변화로 구성 된다”는 것이다(Bourdieu, 1984). 이와 같이 육체는 계급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모든 여성들의 ‘몸’이 ‘육체자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 ‘중년여성’ 담론: 젠더화된 여성의 ‘나이듦’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생애주기 발달단계상 ‘중년기’에 해당하는 발달과업의 특성과 맞물려 신체적 변화와 함께 동반하는 몸의 기능 저하²⁴⁾, 그로

23) 노엘 샤텔레, 『맞춤육체』,(사람과 책, 2002). p. 167.

24) 다음은 ‘중년의 ‘외로움’은 심장질환으로 연결 된다’라는 기사내용으로 “중년이후의 외로움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야기하는 등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루이스 호클리 박사는 ‘심리와 노화’라는 잡지에서 50세 이후의 외로움은 당뇨병만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발표했다. 50세에서 68세까지의 중년 이상의 남,여

인한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강인, 1990; 고인균, 1987; 김남순, 1986; 김은아, 1992; 김현순, 1993; 서수정, 1992)이 있다.

생애주기 발달단계에서 이론화된 '중년 여성'은 40대 이후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폐경으로 성호르몬 분비가 감퇴되는 급격한 생리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남편의 정년으로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게 되며,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가족생활과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김명자, 1989).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구체적 현실에서 다르게 구조화되는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고 다양하게 맥락화되는 여성들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을 은폐한다.

생애주기 과업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중년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성에게 있어서 중년기는 신체적인 노화현상과 더불어 자녀의 독립으로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노부모와 친척, 친구의 질병 및 죽음에 따른 사회에서의 변화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발달적 위기에 직면하는 정상적 발달 과정상의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위기의 시기만은 아니며, 인생의 다른 시기처럼 나름대로의 역경과 일, 즐거움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의 황금기'로 생각하기도 한다.”²⁵⁾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여성들의 '나이듦'을 '위기'로 담론화 한다.²⁶⁾ 어떤 특정한 나이대의 범주화는 다양한 층위에 있는

229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높고 심장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www.edaily.co.kr, 『이데일리』, 2006년 3월 30일자. 현대사회에서의 '외로움'은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겪는 무수한 감정들 중 하나로 개인들은 근대성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근대성과 함께 등장한 외로움의 증상은 '중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굳이 외로움(외로움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감정질병'들을 총동원해서라도)과 '중년'을 연관지어 연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맥락을 되짚어 보면 '중년'을 '중후군'으로 담론화 하고 있는 담론의 기제가 드러난다.

25) 성말순,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재인용.

26) 가족학자, 발달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은 개인의 '나이'를 생애주기에 따른 생물학적, 물리적

여성들을 단일한 '여성'으로 묶어내면서 다양하고 특수한 여성들의 경험과 맥락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담론은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젊거나 혹은 늙은 여성'이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화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년'이란 범주화를 통해 여성의 '나이들'을 '늙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는 왜 그토록 '중년'이라는 특정한 연령대를 범주화하고 집중하는가. 사회는 '중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중년의 과업'과 '노년'을 위한 마음의 준비(27)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여성의 '나이'에 따른 타자화와 함께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연령별로 기대되는 '연령규범'으로 맥락화 된다. 생애주기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중년'의 과업은 그 나이대에 맞는 역할을 결정지으며, '중년'에 기대되는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정상화' 규범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나이들'을 일관된 경험으로 이해한다. 전제된 '중년기'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은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중년여성'을 과업의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하여 담론화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담론화는 여성들이 '나이들'을 의미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여성학 논의에서는 '중년여성'의 '나이들'을 의학적 모델로 설명하는 연구들에 반대하여 '중년여성'을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여성의 '나이들'을 살펴보고 있으나(Bernard, 2003; 최현진, 2004), '중년'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러한 '범주화'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중년여성'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들'을 가장 극명

인 '나이'로 구분하면서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치중하여 여성들의 '중년기' 연구나 담론을 생산해내면서 여성들을 '신체적이고 증상적'인 것으로 분석한다. 박경숙(1992)은 여성의 '나이들'을 '중년'이란 특정한 나이대로 범주화하며 '나이효과'로서의 생물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태도를 연구했다. 박경숙,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또한 홍선경(1996)은 성역할태도에 따른 우울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선경,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27) 멋진 중년기 되기 위한 조건, 7가지 계명이라 하여, '중년의 세븐업(seven up)이라는 유행어가 있다. "첫 번째는 단정함(clear up)이요, 다음으로는 경청하는 자세(listen up), 입을 다물어야(shut up)하며, 나를 돋보이게(show up)하는 노하우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dress up)과 적재적소에 지갑을 열줄 알아야(pay up) 대접받으며, 안되는 건 깨끗이 단념(give up)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006년 3월 28일자.

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젊고 건강한’ 여성이거나 ‘어머니’로 서만 존재하는 여성들의 위치는 ‘나이든’ 여성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잘 보여준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이든’ 여성들을 관심 영역 바깥에 위치 지우며 남성중심 사회는 ‘나이든’ 여성들을 ‘문제적’인 사람이거나 결핍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이 든’ 개인은 ‘생산성’의 교환가치가 없는 잉여적 존재로 취급된다. ‘젊고 건강한’ 몸은 교환가치를 내는 노동육체로 지금의 경제 질서가 선호하는 ‘몸’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의 ‘나이듦’, ‘중년’을 재생산하는 것은 여성의 ‘나이듦’이 ‘자본’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거대한 소비시장에서 ‘중년’은 ‘자본’이 된다. 또한 ‘중년’담론은 소비시장의 중요한 마케팅전략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한 인터넷 뉴스에서 “‘지친’ 중년피부 치료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로 여성의 ‘나이’와 피부에 관한 기사를 실은 글이다.

“중년에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침착 질환은 물론 주름, 피부 늘어짐 등 피부 노화가 한꺼번에 시작된다. 그 가짓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단계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또 요즘 중년 중에는 런치 필을 찾는 이가 많다. 이는 결혼 전 피부 관리, 혹은 직장인용 피부 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크리스털 필링 등의 박피술. 그런데 이는 20~30대의 피부세포 성장력이 강한 젊은이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주름 잡히고, 늘어지고, 얼룩이 낀 ‘불독형’ 중년의 얼굴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경제적 손실만 입을 수 있다. 만약 정 급하다면 이때는 전문의와 상담 하에 심부 피부 재생술을 고려해 본다...”²⁸⁾

각종 방송과 미디어는 여성들의 ‘실제나이’와 ‘피부나이’에 대한 광고문구들로 “주름 잡히고, 늘어지고, 얼룩이 낀 ‘불독형’ 중년의 얼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경고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나이듦’과 끊임 없이 갈등하며 현실과 타협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이듦’은 소비 전략으로 아주 유효하다. 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

28) 경향신문, 2006년 4월 10일자.

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스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늙음'과 '젊음'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된다. 여성의 '나이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동안 '젊음' 여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지운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나이듦'은 '남성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위해 몸 바친 '힘없는 가장'으로 대변되며 우리 사회가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되는 '불쌍한 아버지'로 언설화 되고 있다. 남성들의 '나이듦'은 경험과 경륜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차원이지만 여성들의 '나이듦'은 '늙음'이라는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조옥라,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자본화되고 있는 여성의 '나이듦'을 살펴보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와 '중년 여성' 담론이 '나이듦'을 의미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맞춤육체'로서의 여성의 '나이듦'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곧 자아이다. 여성의 몸은 곧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계급지위이다. 자아를 관리하는 수단은 점점 소비상품과 연결되며 사회적, 경제적 성공은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달려 있다(샤틀레, 1998).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몸은 한국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얼마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달라진다. 여성의 몸은 한국사회의 문화코드를 담아내는 공간이다. '몸 만들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용 산업과 성형 산업은 가꾸지 않는 여성의 몸을 단죄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분리될 수 없는 '젊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추구한다. 식이요법, 미용술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고, 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필요하다. 성형산업이 이에 완벽히 부응한다. 성형수술은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다. 게다가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샤틀레, 1998).

다음은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개멘트이다.²⁹⁾

“신데렐라로의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 코가 조금 높았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클레오파트라가 성형을 했다면? 비너스의 몸매 중 허리 살을 조금만 깎았다면 어땠을까? 미인들의 조금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의미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에서 소외된 그들이 한걸음씩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결함이 결코 사회적인 결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의 유리구두가 되어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기회를 드립니다. 미혼인 여성과 주부 등 계층을 다양화한 3기에서는 그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을 방영합니다. 검은 피부, 출산 후의 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된 참가자의 신데렐라 변신과정을 함께 하시죠. 미혼인 여성과 남성, 주부 등 계층을 다양화한 4기에서는 그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을 방영합니다. 얼굴 상처, 주름, 잡티, 비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된 참가자의 신데렐라 변신과정을 함께 하시죠.”

“도전 신데렐라”라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사람을 선정하여 성형외과, 피부과, 다이어트, 치과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수술을 거친 후 여성들의 달라진 모습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멘트에서 우리사회가 여성들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여성들의 ‘아름답지 못한 외모’는 현대사회에서 ‘소외’ 될 정도로 ‘육체조정’은 필수적이며 미혼여성, 남성, 주부 등 몸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없다. ‘얼굴 상처, 주름, 잡티, 비만’처럼 여성들의 몸은 부위별로 파편화 되어 ‘균형적이고 완벽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몸이 되려면 가꾸고, 관리하고, 수술해서라도 ‘규범화’ 된 몸과 얼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라고 경고한다. 성형수술이 삶의 흔적을 소멸시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백지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이 ‘생애’에 다시 태어나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혹은 실수로 잃어버린 새로운 얼굴, 처녀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젊음을 위해 육체에 가해지는 모든 변형들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바라기만 한다면 팔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샤틀레, 1998).

29) www.dongahtv.com,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

보드리야르(1991)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육체를 말하며 오늘날에는 육체가 광고, 모드,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고 본다. “육체를 둘러싼 위생관념 및 영양 그리고 의료의 숭배,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여자다움 등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날씬해지기 위한 식이요법, 또 그것들의 변체의식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 육체에 따라 다니는 쾌락의 신화”는 오늘날 육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의 소비/생산의 구조가 자본으로, 물신으로 육체를 취급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여성들은 자신보다 더 못 생긴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더불어 자신의 유일한 가치인 외모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성형수술이라는 신체적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그것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은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대수준은 끊임없이 상승한다(권수현 외, 1996).

미용과 관련된 많은 광고들에서는 여자들에게 자기 몸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여성적 아름다움의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속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남겨놓는다. 여자들은 육체적 결함이라는 만연해 있는 의식을 배경으로 각종 여성 공학적 기술들을 택하여 실행한다(콘보이 외, 1997).

이러한 자본주의 소비전략은 개인들을 헬스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아침저녁으로 몇 시간씩을 ‘몸 만드는 시간’에 투자하도록 한다. 개인들의 ‘몸 만들기’는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몸짱 되기’라는 개인의 욕망으로 드러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한 권력구조는 은폐되는 것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몸은 ‘육체자본’으로 문화적 자본에 소속되며 경제 및 사회자본의 형태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육체자본은 다양한 자원들을 축적하는 데 필수적인 권력과 지위 및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육체자본’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³⁰⁾

미디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젊음’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여성의 몸을 주요 표적이자 투자대상으로 한다.³¹⁾ ‘실체나이’로 보이지 않기 위한 상품구매는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한편 여성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들인다. 가공되어 연출되는 여성들의 획일적인 몸 이미지는 여성들의 ‘욕망’으로 조작됨으로서 ‘허구’로서의 여성의 몸이 존재한다. 그럴듯한 이성애적 매력과 외모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 물론, 여자들이 젊음과 아름다움에 열중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은 갈수록 시각매체에 기울어지는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미지의 위력이다(콘보이 외, 1997).

특히, 여성의 ‘나이듦’을 소비전략화 하면서 ‘늙음’을 지연시키는 미용·성형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³²⁾ 매력적인 의복이자 제2의 거주지이며 옷에 대체될 수 있는 기호이자 유행(샤틀레, 1998)이라는 여성들의 피부는 여성들이 “평생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으로, 표피적으로 여성의 ‘나이듦’을 가늠하는 데 일차적이다. “뽀얗고 하얀” 피부는 젊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예방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요한다. 늙지 않기 위한 ‘주름’의 관리는 ‘늙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성들의 ‘늙음’을 방지하고 지

30) 크리스 윌링, 임인숙(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3), p. 186.

31) “중년여성을 잡아라” 000백화점이 최근 3년간 ‘연령대별 8월 매출 비중’을 분석했더니, 20~30대는 줄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40~50대 비중은 계속 늘어났다. 20대의 경우 2001년에서 15.8%에서 2003년 10.6%로 매출 비중이 떨어졌으며, 30대 역시 매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40대는 2001년에서 30.6%에서 2003년 33.1%로 높아졌고, 50대도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 중년층은 특히 수입명품, 모피, 보석, 식품 등에 관심을 보였다. 백화점들은 이를 근거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판촉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한겨레』, 2004년 8월 3일자.

32) 다음은 화장품 광고에 대한 내용이다.

“여자 나이, 피부로 말한다.” “여성들에게 노화는 피부로 먼저 인식된다.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화방지 의약품은 주로 피부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반주사제도 피부노화방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십자는 “최근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개선 등 기존의 허가사항 외에 피부미백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스티바-A가 표피에 모여 있는 멜라닌을 분산시키고 진피 내의 콜라겐을 증가시켜 사용 후 2개월부터 잔주름과 기미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조선닷컴』, www.chosun.co.kr, 2005년 11월 22일자.

연시키는 광고들을 접하면서 ‘늡지 앳는’ 나의 몸을 욱망한다. 여자의 몸에 여성성을 새겨 넣는 훈육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으며 아무데도 앳다(콘보이 외, 1997).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지만 ‘늡음’은 통제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늡지 앳기’를 꿈꾼다. 여성들로 하여금 ‘젊음’을 절대가치로 생각하게 하고, 그런 젊음을 재생산하는 환상의 제국주의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몸의 훈육과 정상화는 놀랄 만큼 지속적이고 유연한 사회통제 전략이었다. 물론 나이·인종·계급·성적 취향에 따라서 정도와 형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마 그것은 여성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유일한 여성억압일 것이다(보르도, 2003).

부르디외는 몸은 각 사회계급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몸 관리방식을 취함으로써 개인이 속한 사회계급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과 지배계급은 몸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노동계급은 몸을 ‘도구적 관계’로 맺는 경향이 강하며 만약 운동을 한다면 노동계급은 역도나 근력지향 활동과 앳은 그들의 육체적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영역에 신경을 쓴다. 반면, 지배계급들은 몸을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로 취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부르디외, 1978). 몸을 도구화해야 하는 노동계급 여성들은 사실상 ‘몸 만들기’에 투자할 시간이 앳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주장에 따르면(1984), 노동계급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집에서 입는 옷차림새와 음식준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남편과 자식들의 욱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의 욱구들을 희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본다. 반면, ‘몸 만들기’ 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앳는 지배계급은 몸에 대한 적절한 ‘생활양식’(Calnan, 1984)을 선택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몸에 대한 문화적 코드들을 여유롭게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처럼 ‘몸만들기’는 계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여성들의 지위를 계급적으로 범주화하여 보여주는 담론으로 ‘아줌마’와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있다.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네이버

국어사전)로 ‘아줌마’란 호칭은 나이, 외모에 따른 계급적 용어이다. ‘아줌마’는 ‘촌스럽다’, ‘피머를 하고 있다’, ‘폭 피졌다’, ‘멋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따진다’ 등의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아줌마’는 탈여성화 된다. ‘아줌마’ 담론은 ‘젊고 예쁜 여성’만이 한국사회에서 여성(women)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굳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아줌마’로서의 모습만 갖추면 ‘아줌마’로 불리는 사회다. 그에 반해 ‘사모님’이란 호칭은 남편이나 본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 사용되는 언어로 사모님 같은 부유층인 경우에는 자신 또는 남편의 신분, 지위, 경제력 등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현시욕구(체면욕구)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상징적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박은아, 1994; 성영신, 1994; 차영란, 2002; 차영란, 김기범, 한준오, 2003).

김기범, 차영란(2003)은 사회적 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모님’과 ‘아줌마’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활동 관련 면에서 ‘사모님’ 집단이 의식주 생활 모두 ‘아줌마’ 집단보다 높게 평가됐고, 여가 및 외식비 사용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소비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소비’는 계층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에는 여성들에게 ‘여가’로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젊고 건강한’ 몸으로만 유용한 것이 되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들이 절실하다. ‘몸’으로 환원되는 여성의 ‘나이듦’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교정하면서 ‘늙음’과 ‘주름’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맥락화 되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저항의 지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Ⅲ. 생애주기 연령주의 정치학

A. '삶의 주기' 안에서 본 여성의 '나이듦'

한국사회에서 “나이 먹는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인다. ‘나이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쓴다. 많은 경우 “나이 먹어서 그렇다”는 식의 ‘적당한’ 핑계거리로 쓰이며 ‘나이’는 우리의 삶을 ‘무난하게’ 설명하는 데 탁월하다. 자신의 삶을 ‘무난하게’ 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언설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나이듦’을 체화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애사적 ‘사건’들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생애주기 연령주의가 일상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나이듦’을 의미화 하는데 ‘나이듦’의 범주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보편적인 ‘나이듦’의 경계를 체화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의 생애사적 경험이 ‘나이듦’을 의미화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생애주기 연령주의가 일상화 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대에 맞게 살아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나이듦’의 규범 안에서 여성들 스스로 담론을 의미화하는데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연령주의의 일상화: ‘나이에 걸맞게’ 서바이벌(*survival*)하기

우리 사회는 ‘나이듦’에 민감한 연령주의 사회이다. 개인들은 보편화 된 ‘나이듦’의 경계에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한계 짓는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듦’이 주는 억압은 개인들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개인들은 ‘나이듦’의 경계에서 ‘나이대’에 맞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서바이벌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위치한 ‘상황적 조건’에서의 서바이벌이며, 여성들이 처한 ‘삶의 조건’은 성역할로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위치이다. 여성의 성역할은 결혼·임신·출산·양육이라는 생애사적 경험과 함께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과업이 시작된다.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된 규범이 존재한다.

어릴 때 꿈은 간호사도 있고 가수도 있고 꿈도 많았는데 환경이 환경인만큼 시골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형제도 많고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4남 2녀 중에서 남동생이 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거의 그냥. 그래서 서글퍼, 서글프게 자라온 거지. 오빠한테 치이고, 남동생 둘을 내가 키웠지. 그러니까 꿈을, 생각은 있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자랐지. 나는 10대 때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 가르친다니까 회사에서 학교 보내 주는 데로 가라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학교 다녔다니까. 집에선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아들들 가르쳐야 된다고. 시골에 우리 자랄 때는 아들이 우선이야. 아들만 가르쳐 딸들은 안 가르쳐. 니들이 벌어서 니들이 공부하라 이겨야. 우리 자랄 때 부모님들은 그랬어. (진주, 46세)

(그렇게 20대를 살면서 애들을 낳고 키운거네, 그때 결혼 안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 친구처럼 자유롭게 살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20대면 한창 젊을 텐데 저 친구처럼 자유롭게) 그 당시는 오히려 몰랐지. 지금 결혼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지. 30대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30대는 항상 살면서 이 생활에 만족 못했다가 어떨 때는 만족했다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았어. (어떨 때 갈등을 느꼈나요) 성격이 안 맞을 때 나는 그런데 저쪽에선 안 그럴 때. 살면서 터득한 게 한쪽에서 참아야겠다 라는 거 있잖아.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포기했지. (그러니까 사는 게 갈등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수도 없이 했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한 행동 책임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했잖아. 그래서 여태까지 살았어. (미숙, 43세)

진주의 10대 때 꿈은 ‘간호원’과 ‘가수’였다. 그러나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자신은 꿈을 포기한다. 진주는 그 ‘상황’을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양보하고 학

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를 보내주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다. 진주처럼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여성들은 언제나 아들과 남동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딸'로서의 성역할을 경험한다. 어릴 때부터 성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회구조는 여성들이 의심할 겨를도 없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삶을 지배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난했던 시대적 배경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체념과 타협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과 충돌하게 된다. 가부장제 젠더 체계에 의심 없이 동조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경험이 단순하지 않고 반대로 그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당당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들의 삶을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이혜숙, 2003).

미숙은 결혼생활을 통해 20대의 자유로운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자유로운 삶은 '만족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을 통해 알게 됐으며, 30대의 결혼생활은 '어떤 때는 만족했다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미숙은 결혼생활이 자신을 포기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터득했다'고 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인 자신이 참고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게 결혼의 '노하우'인 것이다. 미숙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애 때문에 참고 산 결혼생활'이었다고 대답했다. 여성들에게 '엄마'로서의 위치는 "수없이 도망치고 싶은" 결혼생활을 참고 살게 한 기제이다. 여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성역할은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위치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절차는 여성들을 '가족'에 머물게 하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헌신하며 희생하도록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름은 '어머니'란 이름의 희생으로 존재한다. '어머니'를 찬양하는 가부장제 사회는 '가족'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여성들을 은폐한다.

내가 재수하다가 결혼했는데 그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대학 갈 형편도 안됐고 상황이 안 좋았어.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시집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결혼 적령기가 23살에서 25살까지 그 사이에 많이 갔어요.

그때 결혼관이 빨랐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애도 있었지만 그다지 뭐 시집을 가기위해 대학을 갔었지 커리어우먼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육남매를 키워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죠. 내가 우리 집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마땅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은 조금 했지만 조그만 회사에 경리 겸 조금했었지. 그 외는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때는 뭐 지금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집안 회사라 그다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결혼을 했어요. (영미, 50세)

젊은 사람도 30, 40대 충분히 할 사람이 많은데 50된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미 나이로 해버리니까. 전문직 아닌 다음에야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 보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 하루 종일 아이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 50세)

20대 초반이 결혼적령기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영미는 '결혼'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또한 '육남매'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결혼'을 선택한다. 주위에 '결혼'하는 여성들과 집안의 어려움이 '딸'로서 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한다. '나이'가 되면 당연한 절차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에서 생애사적 경험이 되는 '결혼'에 대한 의미화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차별로 여성들은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취직"인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직장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취업난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취직 대신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조건 지워지는 '결혼'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은 여성들이 각기 처한 현실 속에서 다르게 의미화 되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영미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나이'가 중요시된다고 이야기한다. '나이'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근거물로 작동하면서 '나이든' 사람들이 설 자리를 배제한다. '전문직'을 갖지 못

하는 여성노동구조 속에서 영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이 담당해오던 '돌봄 노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일들이다.

내가 50세가 된 사람한테, 60이 된 사람한테, 만약 40세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생각에 내가 맞춰야지. 목욕탕에,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노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해서 아이들 베이비시터 같은 거 학습 보육시터 같은 걸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놨어요. 지압, 애들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걸 따놨는데, 그것도 엄두가 잘 안나. 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여자인데 뒷일을 생각 안한 거에 대한 후회. 그 답에 내가 옛날에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배우고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있었던 거야.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거. 뭐 막상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깐 내가 너무 진짜 잘하는 게 없더라고. 그거에 대한 회의도 많고. (수정, 46세)

수정은 '나이'가 들면서 목욕탕이나 헬스장에 가게 되면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들'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 앞으로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은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다. '비슷한' 삶을 살았을 선배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로 자신의 '나이들'을 준비한다.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노년'을 대비하게 했지만 '막상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음'은 지금까지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자신을 위해 용기내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해보지 못했던 수정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 것이다. '엄마'와 '아내' 역할만을 하던 여성들이 '나이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여성들은 그렇게 '나이들'을 경험해야 한다.

50대면은 50대다워 보여야 돼요. 40대면은 40대다워 보여야 돼. 그리고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다워 보여야 돼. 자기에 맞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30대가 20대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정말 50대가 40대처럼 하

고 다니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거는 격이 안 맞다고 봐요. 내가 50대가 되면 내가 50대에 맞게 맞춰야 돼요. 그걸 굳이 화장품 광고 나오는 것처럼 벗겨내고 뭐 이렇게 하고, 물론 밖에 나갈 때 예의상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지만 굳이 뭐 광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자기 생활에 맞춰서 살아줘야 돼. (영미, 50세)

영미는 각 세대에 맞는 ‘나이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50대는 50대답게’ ‘40대는 40대답게’라는 ‘~다움’은 각 나이대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을 규정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다움’의 신화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단한다. 현대사회는 개인들을 ‘~다움’의 신화로 판단함으로써 ‘~다움’ 신화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나이듦’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나이듦’의 규범이 얼마나 견고하게 개인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각 나이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정상성’ 이데올로기는 각 개인의 삶을 보편적으로 강제하며 다른 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을 처단하거나 낙인찍는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개인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규범에 순응한다. 아마 그것은 평생의 과업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나이듦’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성들의 생애사적 ‘사건’들은 성별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성역할과 함께 맥락화 되었으며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연령규범’은 여성의 ‘나이듦’을 의미화 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체화된 경험으로서 ‘나이듦’의 의미: ‘나이듦’을 의미화하는 맥락들

‘나이듦’을 타자화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나이듦’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를 체화할 수밖에 없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일상적인 타자의 경험을 텍스트화 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경험은 사회에서 담론화 되고 있는 ‘나이듦’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취’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한다. 여성들은 일생을 ‘나이듦’에 대한 문화 속에서 자

신의 '나이듦'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듦'을 의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들을 통해 확인하세요?)그렇지.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들, 몸의 이상이 오는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개네보다 차라리 낫더라고. 일을 많이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거라든지 비가 오면 쭈신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 난 아직!?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나봐! 이런 말들이 많아졌어.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몸의 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네들도 뭘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뭘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복합적으로 그 말이 거기 붙더라구. 만약에 야~ 이렇더라! 그럼, 야 그거 나이 드느라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수정, 46세)

수정은 친구들을 통해 몸에 찾아오는 변화를 '나이듦'으로 해석한다. 수정에게 일어난 '몸의 변화'는 친구들을 통해 그 의미가 해석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몸의 변화'를 '나이듦'으로 이해한다. 수정과 친구들도 '그것이 뭘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나이 드느라 그렇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진다. 수정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나이듦'은 단일하게 자신의 경험만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경험이 '공통의 것'으로 구성된다. 수정의 친구들이 '뭘지 모르지만' '나이듦'의 증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담론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시점의 나이듦을 물어보는 거잖아. 10대, 20대도 넘어가는 것도 나이 드는 거고. 지금 내가 특별히 나이를 더 의식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30대도 마찬가지였고 40대 지금 뭐 나이가 들어가는 구나 이런 걸 자극하고 의식하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가끔 나이를 의식하는 상황이 있지. 예를 들면 그야말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이 제한에 걸린다거나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숫자를 정확히 얘기를 못해. 더 무심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 산수적인 사고가 떨어져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초반 쯤 지나가면서 나이에 대한 숫자개념이 희박해졌어. 근데 나이를 의식할 때는 내가 활동을 할 때 나이 때문에 뭔가 걸림돌이 될 때 아, 이때 내 나이가 이런 나이구나. 그런 때 가장 나이를 먹었구나. 나이가 하나의 장애가 되는구나 이런 걸 의식하게 되는 거지. (성순, 45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음식점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마트 캐셔 내가 너무 자신이 못나보였어요, 정말. 나

이제한 많아요. 나이제한 있더라구요.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더 일찍 빨리 이걸 깨닫고 나의 전문직을 무엇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 엄마들 보면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50세)

성순과 영미는 노동시장에서의 '나이제한'을 통해 '나이듦'을 경험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나이제한'은 성순과 영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나이듦'에 공포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나이제한'이라는 제도는 '나이듦'을 의식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존재한다. 영미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일' 아니면 '마트 캐셔'밖에 주어지지 않는 자신을 보고 '참 못났다고' 생각했다. 많은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여성들의 '외모'와 '나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한계로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정규 노동을 살펴봐도 "26세 미만의 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나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³³⁾ 여성의 '26세'는 사회에서 이미 '젊지 않음'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얼마나 '소녀육체'로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용모 단정한'이라는 문구는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가 아니라 '예쁘고 늘씬한 몸'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여성들의 '용모'와 '나이'는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4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영미처럼 여성의 '외모'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주방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임신·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을 경험한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경험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들

33) 최근 노동부는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관한 내용을 제시, 집중 단속할 것을 발표하였다. 노동부 '성차별적' 모집·채용 집중단속, "키 160cm, 체중 50kg미만의 여성 사무직 구함", "용모 단정한 20대 여성 알바 모집", "판매원 모집(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노동부가 이 같은 종류의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 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 상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모집·채용 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노동청에서 함께 접수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얼짱 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퍼지면서 최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www. 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18일자.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녀의 양육을 온전히 여성의 것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나이든’ 여성들이 설 자리는 이미 없는 것이다.³⁴⁾ 영미는 그걸 좀 더 일찍 깨닫고 준비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한다. 이러한 구조화 된 여성노동환경은 여성들의 책임감 문제로 환원된다. 자녀의 양육을 오로지 여성 자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임신·출산과 함께 자신의 ‘전문직’을 병행하기는 힘든 일이다.

40대 중반 넘어가고 나이가 먹었지. 나이가 먹었다는 걸 느껴. 얼굴보고 딱 느낀다니까. 얼굴도 그렇고 다크 서클이 굉장히 생겼어. 이게 생기더라고. 거울을 보면 확 느껴. 마음은 안 그렇지. 근데 실천이 안 된다니까. 솔직히 마음은 있지. 신세대들 옷 입는 것처럼 입고 싶다니까. 근데 실천이 안되는 게 그게 나이 먹었다는 건가봐. 그전에 나이 먹은 언니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 지금 50대 언니들이 나한테. (진주, 46세)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늙었다는 걸 사진에서 느낀 거 있잖아. 찍고서 딱 사진을 봤는데 나이 먹은 게 딱 보이더라. (옛날 사진을 보고?) 아니 현재 사진을 보고. 나이 먹은 게 사진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사진 안 찍으려고. 내가 사진으로 느꼈어. 그리고 눈가에 주름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34) 한국고용연구원 권혜자 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40대 여성의 직업군 차이와 경력단절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20대 여성은 전문직, 40대 여성은 단순생산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와 40대가 높고 30대가 낮은 M자형 곡선을 이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30대 후반 94.7%로 최고조에 이르고 50대까지 90%를 유지한다. 여성은 20대와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67.3%와 65.5%로 7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지만 30대 초반에는 53%까지 떨어진다. 남녀 간 임금격차도 연령대에 따라 크게 벌어져 20대 여성은 남성보다 9% 적은 임금을 받지만 40대는 19.4%까지 차이가 났다.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비정규직 내지 하향 취업을 하는 경향 때문에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녀 간 직업군 분리현상도 두드러졌다. 2006년 2월~ 2007년 1월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450여만명이 속한 118개 직업군 중 여성 집중직업(여성비율 70%이상)은 14개(11.9%)에 불과했다. 업종도 음식서비스, 보건·의료 관련직, 청소 및 파출부 관련 등 단순서비스업이나 노동 관련업이 대부분이었다. 남성 집중직업은 건설, 서비스, 엔지니어, 공무원 등 60개(50.8%) 분야나 됐다.” www. kukinews.com, 『국민일보』, 2007년 6월 28일자.

요즘에 다시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미숙, 43세)

진주와 미숙은 '거울'과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자신이 나이 들었음을 발견 한다 '거울'을 보는 '사건'을 통해 '나이듦'을 느낀 것이다. '거울'과 '사진'은 여성들에게 일생동안 자신을 타자의 모습으로 확인하게 하는 매개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보급된 디지털 카메라는 "셀카"라는 유행을 만들어 낼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찍히고 있다. 자신의 모습이 언제든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회는 감시의 시선을 놓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체조정도 가능한 여성들의 몸은 언제든지 '수정가능'하다.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여성들이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주름'은 '늙음'의 표상이다. '주름'은 인간에게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여성들은 '주름'을 통해 '나이듦'을 가늠한다. '거울'과 '사진'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검열하는 남성의 시선이다. 또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본 진주는 자신보다 먼저 '나이듦'을 경험한 언니들이 해준 이야기들을 통해 그것이 '나이듦'이라고 해석한다. '나이듦'은 주변에서 이야기되었던 담론들을 통해 체화되는 것으로 담론에서 여성의 '나이듦'이 어떻게 맥락화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드러난다. '나이듦'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담론 안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들은 '나이듦'을 담론 안에서 구성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험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낸다. 여성들은 모든 담론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담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담론을 해석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는 담론의 권력구조를 드러낸다.

내가 옛날엔 갔는데 못 간다. 거부하는 곳. 옷 때문에도. 나이 먹었다고 생각이 들고 옷 살 때 길가다 저 옷이 이쁘다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저건 젊은 사람이 입는 옷이지 할 때, 그게 나이 드는 거지. 어디 가서 보면 찻집이라든지. 나는 들어갈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구나. 바라보구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날 그렇게 안보지. 나이에 맞게 보잖아요.
(순이, 47세)

순이에게 '나이듦'은 자신을 '거부하는 곳'이 생긴 것, '입어선 안 될 옷'이 생긴 것이다. 순이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이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통제한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날 그렇게 안보지'라는 순이의 말에 우리 사회의 '젊음'의 맥락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순이에게 '나이듦'의 경계들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나이듦'의 규범이 존재한다. 이는 보편화된 '나이듦'의 경계들이 존재하면서 누구나 그 경계를 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이에 맞게 보잖아요'라는 순이의 말이 잘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들은 모든 개인에게 작용하는 일정한 통제전략이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기의 공간을 잃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 즉 '젊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뭐 기억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대는 공통점이 많잖아. 나 요즘에 뭘 어디다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리고 전화기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던가 이런 거 있잖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베란다에 뭘 가져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생각이 나거든. 그럴 때 야 이거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그런 소리 많이 하지. 그런 거 하고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 산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파 하면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 나이 먹었어. 그런 소리 많이 나오지. (미숙, 43세)

보통 '건망증'이 생기면 우리는 '나이 먹었어'라는 말을 곧잘 쓴다. 미숙도 '전화기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던가' '베란다에 뭘 가져갔는데 생각이 안 난다 거나' 할 때 '나이 먹었다'는 소릴 한다고 한다. 미숙에게 '건망증'은 자신의 나이대의 '공통점'으로 해석된다. 의학적으로 '건망증'은 기억이 일시적으로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오래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나 최근 일을 잊은 것도 포

함한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건망증’은 어릴 때부터 개인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일이다. ‘나이듦’에 상관없이 개인의 꼼꼼하지 못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습관행동 같은 것이다. 그러한 습관행동은 ‘나이듦’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주 무언가를 잊을 때마다 “나이 먹었냐?”라는 말로 편잔을 주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의 언설화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아파진다. 또 이렇게 된다. 이게 머릿속에 너무 주입이 되어 가지고 어깨만 아파도 아이고 이제 오십견이 오나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스물 몇살 되면 시집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서른 몇 살이라고 그러데? 왜냐면 그게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이러니까 서른 몇 살이 넘어도 괜찮아. 우리 때는 스물일곱 살 넘으면 되게 노처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서른 몇 살도 노처녀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로 아닐까. (수정, 46세)

수정은 어른들에게 ‘머릿속에 주입’이 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들로 ‘나이듦’을 이해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아파진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은 수정에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판단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나이듦’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으며 단지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표상들이 있을 뿐이다. ‘나이듦’은 여성들에게 체화되는 방식으로 그 의미들이 맥락화 되고 있다. 수정은 ‘나이듦’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 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스물 일곱’과 지금 시대의 ‘스물 일곱’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20대였던 시대의 ‘스물 일곱’은 지금과는 다른 ‘나이’로 의미화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나이듦’은 체화되어 의미화 되는 것으로 타인의 경험을 텍스트로 의미화된다. ‘나이듦’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타인의 경험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 좋은 거울이 된다. 여성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나이듦’을 의미화한다. 단지 ‘나이’를 먹는 것으로 ‘나이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나이듦’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났을 때 의미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순의 말처럼 ‘나

이름'을 의식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출생의 순간부터 '나이름'을 체화하게 되는 여성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름'을 해석하는 기호가 된다.

B. 계급화 된 육체자본

여성의 몸이 곧 '자산'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늙어가고' 있는 여성의 몸은 '경쟁력 없음'을 의미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 미디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여성의 몸을 전시하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 성형수술을 불사하고라도 관리된 몸은 여성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됨을 표방하며 다이어트의 합리화는 비로소 시작된다. 경쟁력을 갖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계속해서 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게 한다. '수정된' 몸을 통해 자신의 달라지는 인생을 확인하게 되는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몸의 부피를 줄이는 데 총력을 가한다.

그러나 페더스톤(1987)은, 노동계급은 몸의 쇠락을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신흥' 중산층들에게 늙어가는 몸은 불안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신흥 중산층들은 노화와 그것의 특성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몸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상류계급들은 노화된 걸모습을 덮고 위장할 수 있는 몸에 대한 태도를 습득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쇠락이라기보다는 지위의 상징으로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상류층에게 "중년은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이며 그들은 주도적 위치에 있는 세대"이므로 노화과정에 좀 더 느긋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³⁵⁾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가 태어나면서 속한 사회적 계층으로 우선 정해진다. 또한 그것은 성, 인종 및 계급 등과 같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속성에 기초한 것이기도

35) 크리스 윌링, 임인숙(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3), pp. 203~204.

하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삶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노화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현우, 2004).

계급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육체자본의 권력을 살펴보고, 여성들 스스로 몸에 대해 구체적 욕망을 드러내기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끊임없이 관리하라는 미디어의 방침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이미지화 된 몸을 어떻게 협상, 저항하는지 드러낼 것이다. 과연 모든 개인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몸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의미화되는 '몸'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이듦': '누구'에게만 문제인가

여성들의 몸을 '쉽고 빠르게' 수정 가능하게 하는 미용·성형산업은 자신의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을 탈여성화한다. '늙음'의 지연은 '선택 가능한' 것으로 부지런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여성들은 언제나 '젊은 몸'을 유지한다. 여성이라면 적어도 '주름개선화장품'과 늙고 불품없이 변한 몸매를 교정해주는 '보정속옷'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몸은 구석구석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일생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듦'이 '노동육체로서의 몸'이 '쇠퇴'하는 경험이다. 이는 여성의 '나이듦'은 곧 사회적 약자가 됨을 의미한다. 평생을 자신의 몸에 대해 프로젝트 '중'인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방법들이 '선택' 가능한가.

50대 아줌마와 남자 50대 나이를 똑같은 나이로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이로만 50으로 나이 많이 먹었어도 남자 50대와 20대 청년 만약에 남자 나이에서 이 사람이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만약에 노숙자 50이라면 20대 청년이 더 대우받는 사회일 수 있다는 거야. 나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사회에서 말하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나이 하나만으로는 위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지. (계급적으로 나이라는 게)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도 그렇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이란

말은 사실 여성의 아줌마 혐오론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 그렇지? 남자 50하고 중년 아저씨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지.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나이들이란 것도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거 그 문제 하나하고. (성순, 45세)

성순이 생각하는 '나이듦'은 성별과 계급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고려되는 것으로 단지 '나이'로서만 위계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50'의 '나이'가 되는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장유유서'로 무조건 20대가 50대보다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순의 말처럼 '중년여성'에 함축되어 있는 '아줌마혐오론'은 성별로 위계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언설화 되고 있는 여성의 '나이듦'은 대표적인 '아줌마'라는 사회적 표상으로 '가장 힘없고 계급 없음'을 드러낸다. '아줌마'는 자궁이 있으면서 재생산 하지 않고 더 이상 성적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탈여성화 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줌마'가 되어도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조정하고 제거한다. '아줌마'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여성(women)이 아닌 여성(female)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힘을 길렀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10년을 더 젊어져서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런 고민은 없어요. 10년이 젊어졌어도 생각을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것 같아. 10년이 젊어졌으면 그만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잘해서 이 다음에 내가 56세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가 좀 무서워. 56세가 될까봐 무서워. 계속 해왔고 하면서도 안 되거든요. (수정, 46세)

수정은 '나이' 드는 게 두렵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대로 10년 후가 되는 게 두렵다. 수정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한다. 그래서 수정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 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또 살아내야 할 뿐이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노후를 맞이했으면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내 자신과 상황은 '나이듦'을 공포스럽게 한다. 이렇듯 수정처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적'으로 다가온다. 수정처럼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학력제한과 나이제한을 동시에 받는다. 어려운 집안 사정은 늘 오빠와 남동생을 먼저 교육시켰고, 여성들은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 위해 일찍부터 돈벌이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가지지 못하는 학력 자본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며 자녀양육이 끝났을 때 재취업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연령차별, 학력차별을 동시에 겪는다.

내가 이 삼십대 내 생활이 없었고 나를 가꾸고 그런 나이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러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40대 좀 여유가 있으면 누리고 살고 그때는 제대로 된 옷도 사 입고 제대로 된 화장품도 바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렇게 되겠지 했어. 근데 또 40대 돼 보니까 그게 또 안 돼. 화장품도 그 동안에는 그냥 쓴 거 샀어. 내가 내 돈으로 안 샀어. 작년에 우리 딸이 설화수 사줬어. 말만 들었지. 처음 써봤어. 비싼 거야. 딸이 다 사다줬어. 내가 사면 그런 거 안사. 쓴 거 사. 화장품 비싸잖아. 솔직히 우리 나이에는 기능성 화장품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못 샀지. 근데 내 피부는 기능성 화장품 써야 돼. 쓸라고 노력해야 돼. (진주, 46세)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몸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었고 솔직히 화장품 한 번도 좋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살았어. 그거 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줘야 된다. 여자들 보통 그러고 살잖아. 그런 식으로 살았지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자리도 잡고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거 그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거울 보면서 젊어져야지 하고 화장품을 산다거나) 그렇지. 화장품을 사더라도 좋은 거 쓰게 되고 주름개선이나 기능성을 많이 사고 (또 하는 노력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여유를 많이 찾지. (미숙, 43세)

진주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진주는 40대가 되면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제대로' 된 옷도 사 입고, '제대로' 된 화장품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40대가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진주에게 '여유 없음'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진주에게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삶의 '사치'를 부리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젊은 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이'가 들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며,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 해도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만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은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익숙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여성들에게 '기능성 화장품'은 '삶의 사치'다.

미숙도 진주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는 좋은 화장품을 쓰기도 힘들고 내 몸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도 못했다. 그럴 돈 있으면 '애들한테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줘야 된다'는 생각은 미숙뿐만 아니라 '보통의' 여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다. 지금은 옛날보다 좋아진 형편으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화장품을 사도 '주름개선'이나 '기능성' 제품인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된다. 미숙처럼 '보통의' 여자들은 화장품 살 돈으로 애들 옷을 사거나 남편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쓸 돈을 가장 먼저 아낀다. 여성들에게는 '제 배 굶아 자식 먼저 배불리하는 게' '엄마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미숙이 옛날보다 좋아진 형편으로 비로소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듯이 여성들에게 최신 유행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경제적 조건에 수반되는 것이다. 미숙은 '나이'가 들어 경제적 조건이 좋아진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고착화된다.

30대나 20대? 그때로 돌아간다면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고 하니 뭐 새로울 게 있을까? (나이 먹는 걸 준비하세요?)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잘 안되잖아.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냥 건강하기만 바라는 거지. 건강하면 뭘 해먹어도 살 거 아냐. 나이 70이 돼도 건강하면 뭘 해도 하잖아. 근데 자기 몸이 안 따라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서글픈 거 아냐. 나이 들면? 부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다정하게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담에 늙어서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 (30대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보다는 깔끔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나이가 드셔도 정정하니 몸이 건강해보이잖아. 살아도 추해보이진 않잖아. (나이 들면 경제적인 걸 무시 못 하잖아요. 지금도 별면서 살아도 부족하단 말야. 나이 들면 못 버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돈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나이 들면 서글플 것 같애.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 지금까지는 아무 느낌 없는데 나중에

늙으면 어쩌게 될지 모르지. 근데 내 생각에는 건강이 따라주면 뭐든지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지. (은정, 46세)

(보통 여자들은 40대 늙는다고 느끼기 시작하는데) 난 그때만 해도 그런거 없었어. 늙네 마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 겨를이 없었어. 사는 데 바빠서. 지금 생각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싶어. (숙희, 57세)

은정은 수정처럼 30대나 20대로 돌아가도 '특별하게 배운 것' 없는 자신에게 '새로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는 게 '급급한' 은정은 지나온 삶이나 앞으로의 삶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지속된 경제적인 조건은 '찬란한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게 하고, 이는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보다 그저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게 될 뿐이다. 은정과 수정에게 '몸'은 '노동육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당장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은정에게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며 '노년'까지 준비할 물질적·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다. 은정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원은 자신의 '건강한 몸'뿐이다. 은정에게 '몸'은 지난 삶을 살아오게 해준 '자산'이었으며, 앞으로의 노후도 책임져줄 '노동육체'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몸'은 좀 더 가꾸어서 아름다워 질 몸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정에게 '나이듦'은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건강한 육체'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며, 그것이 나이 드는 '서글픔'이다. 그래서 은정에게 '노후대책'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은정처럼 자신의 유일한 노동으로 삶을 지탱하는 여성들에게 '몸'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는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몸을 중용하지만 은정에게 몸은 줄곧 '노동하는 몸'이었다. 은정과 숙희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삶의 조건에 놓여 있다. 자신의 '늙음'을 생각할 여유보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은정과 숙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

한 여성들은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여성들의 몸을 자신과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나이든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조건'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 그것은 '나이들'을 두렵게도 막연하게도 한다.

2. 몸 프로젝트: '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 권력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몸은 너무나 빠르게 유행 아이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몸에 새겨지는 문화코드는 몸을 고정된 것이 아닌 언제나 수정 가능하고 변형 가능한 것으로 본다. 몸은 문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매개물이다. 미디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몸을 여성들 스스로 욕망하게 하며, 욕망의 관리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몸매 가꾸기는 소비문화에서 몸이 여성성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최상의 자원으로서 또는 젠더 정체성의 절대적 지표로서 미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몸매 가꾸기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강요된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적, 경쟁적으로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이영자, 2001).

이러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의 몸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몸'이 되었다. 이미지화 된 몸은 개인들에게 균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상적인' 몸을 위해 헬스장으로, 성형외과로 향하게 한다. 이제 몸은 더 이상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파편화되고 분절된 조각들로 남는다. '투명하고 하얀 피부' '계란형 얼굴' '균살 없는 팔뚝' '탄력 있는 종아리' '잘록한 허리' '볼륨 있는 가슴' '지방흡입' '눈, 코 성형' '눈밑의 다크 서클' '주름 보톡스' 등 이제 몸의 조건은 '상품'이 되었다.³⁶⁾ 이제 성형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소비가 되었고 몸을

36) 다음은 얼굴부위 주름제거수술에 대한 소개이다. "나이가 들에 따라 안면부의 조직들은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점차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소실되며 피하 지방과 피부의 접착성이 상실되게 되며 또한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 안면근육, 안면골 조직의 위축성 변화에 의하여 피부의 늘어짐이 심화되면서 주름이 깊어지게 된다. 따라서 요즘의 안면부 주름 제거술은 단순히 안면부의 피부에 나타난 주름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된 안면부의 연부조직 및 안면부의 노화까지도 교정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에서는 '이마' '턱과 목' '안면부 주름' 등 각 얼굴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는 주름 제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파편화하여 성형산업에서 어떻게 상품화가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개인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된 여성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의 이미지들은 현실에서의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 현실에서 다른 ‘조건’으로 위치 지워진 여성들이 미디어의 욕망을 어떻게 ‘적절히’ 타협하고 욕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아니 개성시대인데 우리가 볼 땐 다 이쁜 사람만 나오고 쪽쪽 빠진 사람만 나오고. 물론 개네들은 주름성형 했겠지만 주름제거 같은 거 했겠지만 나이만 틀리지 40대 아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우리랑. 부럽지. 부러운 정도가 아니지. 보톡스까지는 맞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마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늙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에. 사람이 마음의 병이라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 특히 여자들은 얼굴에 나타나. 고민 있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남자같이 틀려. (진주, 46세)

진주는 텔레비전에 ‘다 이쁘고 쪽쪽 빠진’ 사람만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자신과 같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진주는 그들이 ‘주름성형’을 했을 거라고 말한다. 성형이 보편화 된 사회에서 연예인들의 ‘성형’은 ‘필수’다. 연예인이라면 최소한의 ‘성형’을 감행해서라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과 남자 연예인의 성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남자 연예인들의 성형은 자신의 재능에 덧붙여진 외모적 조건으로 해석함에 비해, 여자 연예인들의 성형은 여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형을 감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예쁘지 않은 여자 연예인들을 “비호감”으로 부르며 성형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다. 성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에게 ‘미(美)’는 절대적인 것으로 ‘미(美)’를 갖추지 못했거나 ‘인위적’으로 갖춘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women)’으로 취급받기 힘든 조건임에 분명하다. 진주는 부럽지만 ‘보톡스를 맞긴 싫고’ ‘그냥 마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성형산업은 점점 여성의 몸을 잘게 조각낼 것이다. 『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 www. facesurgery.org, 2002년 12월 17일자.

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진주에게는 '젊은' 몸으로의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삶의 욕망이다. 진주는 자신의 '삶의 조건'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진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주가 늙는 것은 현재 '삶의 조건' 때문이며,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은 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미연이나 강수연, 황신혜도 그렇고 다 나이가 40이 넘었을 걸. 우리 아들이 '저 아줌마 진짜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늙어' 맨날 그래. 나는 그래. 저것들 뭐 연예인이니까 수술하고 뭐 다 여자니까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 저것들은 왜 안 늙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이고 왜 주름하나 없잖아. 재네들은 관리 받고 보톡스 맞고 하니까. 개네들은 먹고 사는 게 방송하고 먹고 사는데 얼굴 주글주글해지면 안 되잖아. 그럼 캐스팅도 안 될 거 아냐. 얼굴이 늙으면 캐스팅이 되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그렇게. (근데 남자 연예인들은 별로 그런 게 없잖아.)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그 상태 그대로 하는데 여자들은 다르지 또. 그게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들은 늙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여자들은 늙는 걸 싫어하잖아. 자기 자신이 주글 거리는 게 좋겠어. 일반인들도 보톡스 맞는 거 수두룩한데 연예인들이야 뭐 얼굴로 먹고 사는데 하고도 남지.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나도 계속 해서 뭔가 관리 해줘야 될 거 같고 뭔가 불안감이 들고 그러지 않아?) 재는 연예인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나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것은 어찌고 저찌고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어. 근데 모든 여자들이 연예인 보고 의식을 많이 하더라. 그런 것 같애. (미숙, 43세)

미숙은 진주처럼 연예인들은 다 '관리 받고 보톡스'를 맞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은 늙지 않는 것이고 연예인들은 '방송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 주글주글해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얼굴이 늙으면 캐스팅이 되겠니'라고 말하는 미숙은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 코드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방송사회에서 '얼굴로 먹고 사는' 여자 연예인들은 당연히 '성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성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연예인들은 연예인으로서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미숙은 '그런' 여자 연예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여자 연예인들이 '성형'을 선택하는 것은 '생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미숙에게 '성형'은 '생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숙은 여자

들이 남자들과 달리 '욕심이 많아서' '늙는 걸 싫어한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늙지 않으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관리 차원으로 이해된다.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젊고 건강함'에 대한 경고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드러나면서 구조화 된 미디어의 상품화 전략은 은폐된다. 그러나 미숙은 자신을 연예인과 비교하지 않지만 모든 여자들이 연예인을 보고 의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다. 미숙도 '성형'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것은 견고한 미디어의 상품화 전략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여성으로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미숙처럼 '성형'을 하지 않는 여성은 결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미디어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여성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의식/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다지 별로 광고는 하지만 귀에 와 닿질 않더라고. 그냥 흘러버리지.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눈썹심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웃어요. 그렇게 하고 싶냐? 하고 우리가 웃어요. 그냥 딸네미 따라갔다가 했다고 그래.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여자니까 있지. 그게 너무 정도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tv에 나오는 여자연예인들 보면 나이가 든 연예인들이 20대처럼 나오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지 아니까 별로 그게 그다지 와 닿진 않는것 같은데……. (영미, 50세)

(광고에서 주름 개선 광고 하는 거 본 거 있으세요?) 보지.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늙을 사람 하나도 없고 주름 생긴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럼 노인네가 하나도 없을 거 아냐. 난 사도 안 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혹하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약장사 따라다니면서 집에 창고로 쌓아놓는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 귀 얇은 사람. 혹 해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장사가 되니까 하지. 난 안 봐. (숙희, 57세)

(TV에 나오는 광고들 보면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화장품?) 그런 거는 몰라. 나하곤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에요. 난 그냥 화장품이나 많이 안 쓰고 마음이 그냥 밝게 하고 내가 움적거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그게 되는 거지. 저걸 발라가지고 치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장품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뭘 잘 물어본다고 했죠? 나가면 할머니들 앉아 있으면 피부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요. 할머니 지금 참 인상이 좋아 보이고 연세가 얼마 정

도 되세요? 그럼 60이다 70이다 80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고. 뭐를 많이 바르셨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세수 잘 했고 자기는 잘 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에센스나 이런 거 잘 때 발랐다면서 화장을 많이 안할수록 훨씬 피부는 좋아진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인상 좋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내가 가서 물어. 그런 걸 물어보지.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무슨……. (수정, 46세)

영미, 숙희, 수정은 광고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다. 숙희는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늙을 사람 하나도 없고’ ‘노인네가 하나도 없겠네’라고 말할 정도로 광고의 ‘진실성’을 간파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지 다 아니까 별로 그게 와 닿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보톡스’나 ‘성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늙지 않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형’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적인 편견으로, ‘자신감’을 형성하고 좀 더 나은 ‘예쁜 얼굴’을 위해서는 성형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 연예인들의 성형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성들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낸다. 자신보다 못 생긴 여성을 보며 위안을 삼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못 생긴 여성들이 나타나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못 생기고 관리하지 않는 몸’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게으르고 경쟁력 없는’ 여성으로 치부해버린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여성들이 미디어의 효과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미디어의 메시지들과 ‘적절히’ 타협하고 있다.

사실 여성들이 욕망하는 것으로 유포되고 있는 획일적인 ‘몸’의 이미지는 미디어의 욕망이다.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전략으로서의 ‘상품화’의 끝은 없어 보인다. 미디어가 ‘몸’에 집중하면서 ‘이상화 된 몸’은 소비되고, 이는 다시 투자되고 자본권력이 된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성형산업과 미용 산업을 굳건히 하고, 이를 여성들이 소비하도록 한다. 일상화 된 광고문구들은 여성들이 손쉽게 ‘성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들의 몸을 변형시키기 위한 시술들은 이제 ‘초간편’ 상품으로 일상화 되었다. 늙어가는 징후는 다양한 수술로 수정할 수 있는 ‘추한 것’이 되어간다. 노화과정은 질병

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살아 있는 고기를 잘라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용모를 추구하기 위해 한층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약속받는다면 바로 응해버리는 것이다(튜더산달, 1999). 여성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하는 미디어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몸이야말로 미디어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소비자'이며 미디어는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한다.

'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권력은 사회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 유지한다. '나이들'에 대한 공포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으로만 남겨두려는 미디어는 개인이 '삶의 한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젊음', '생산', '소비'로 상징되는 미디어의 메커니즘은 '나이들', '늙음'을 '소멸', '실패'로 상징화하고 '늙지 않는' 정지된 상태로 필연적인 인생의 '유한함'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미디어에는 '나이든' 혹은 '나이 들어가는' 삶의 과정 중에 있는 개인들은 없이, '규격화되고 규범화'된 몸만 존재한다. '젊음'을 욕망하는 미디어는 '나이'가 들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예외 없이 '나이들'에 대한 공포를 실천하게 하면서 점점 '나이든 몸'은 배제된다.

여성들은 '여성(women)'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해 이중적인 괴리감을 느낀다. 미디어에서 아름다움과 '여성성'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몸을 '노동'의 매개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육체'로서의 구체적 현실과 '여성성'에 대한 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몸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경험이 다르게 구성된다.

그러나 '늙은' 얼굴의 아름다움은 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역사의 무한함, 그 흔적들 속의 추억, 삶의 단편으로서 피부를 아래로 처지게 하는 그 선들 속에 있지 않은가. 아기나 어린아이의 얼굴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눈으로만 말한다. 매끄러운 피부는 말이 없다. 그 피부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피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을 겪을 것이고 한 존재를 감싸게 될 것이다(샤틀레, 1998).

IV. 구체적 삶의 맥락에서 여성의 '나이듦'

A. '소통'으로서의 '나이듦'

'나이듦'은 단지 '나이든'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이듦'을 바라보는 문제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이며 앞서 먼저 삶을 산 여성들의 이해과정이다. '나이듦'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예상, 그로 인한 애착, 태도에 대한 것이다.

여성들은 주체가 위치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겪는다. 살아가는 과정을 전부 드러낼 수 없으며 그 맥락들 또한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 각기 다른 '삶의 과정'과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 방식을 갖는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처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가족' 중심으로 관계 맺기하기를 강요받는 여성들은 '딸', '아내', '엄마'라는 정체성과 함께 보살핌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성들이 살아온 '시간'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이며 여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힘을 갖는다.

관계가 주는 권력이나 억압에 직면하면서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인다. 여성들은 관계 맺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타자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권력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인' 관계를 지속한다. 관계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삶의 '태도'를 취한다.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나이듦'을 들여다보고 여성들 스스로 담론을 의미화 하는 과정이 단일한 방식으로 체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이듦'은 여성들에게 조건 지어진 삶으로 관계 맺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소통'하게 해주으로써 자신의 삶에 '힘'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나이들'이 무조건 삶에 대해 '도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나이들'의 편견이며 규범화이다. 단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다. 여성들이 위치한 '현재'라는 시간은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지속되는 삶의 과정 '중'에 있다.

1. '자아상': '삶의 반추'로서의 '나이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경험과 여러 관계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여성들은 구체적 현실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 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며 '가족제도'에서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지켜내는 게' 삶의 최우선이였다. 여성의 자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또한 여성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자아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시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 자아의 사회적 구성을 이해하는 데에 생애사가 가지는 시간성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여성은 자신의 주체적인 경험을 주어진 지배적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여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거부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의미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유리하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윤형숙, 1995).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너무 거기에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성격이 소심해서 완벽주의자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댁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우리 남편이 불편한 몸이니까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속된말로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이게 자기 아들이 부족한 점을 괜히 잘난척하고 큰소리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 시부모한테 열심히 시댁한테 열심히 했어요. 딴 데 정신 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되어 보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쏟은 거만큼 그런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쏟았다라면 내 모습은 달라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미, 50세)

남편의 ‘불편한’ 몸은 영미 자신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남편의 ‘불편한’ 몸은 영미가 시댁에 ‘잘 해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남편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미는 소위 ‘잘난’ 부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흔히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집안의 흥망과 남자의 일생이 여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을 여자(며느리)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미는 ‘이 나이가 돼 보니 그렇게 살아 온 세월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 살아보니 시댁에 쏟았던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그 만큼을 자신에게 투자했다라면 ‘자신의 삶이 달라져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영미는 ‘며느리’로서 시댁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다. 뒤늦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영미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개인임을 알게 됐다. 영미는 지난 삶을 통해 자신을 주체로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난 다 내 혼자 했어. 난 얘기도 내 혼자 가가지고 낳았어. (힘이 좋으세요) 힘이 좋다가보다…… 용기가 좀 대단해요. 그리고 막 첫 애기 낳을 때 아프다고 사람들 겁나서 어떡하지 미리 겁먹잖아. 안 죽으면 살겠지. 안 죽으면 살겠지 다 사는데 나라고 못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겁나는 게 없어. 이러니까 이 집에서 살아남은 거야. 애들 키우고 시동생들 다 키워서 나가고. (여태 살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시댁 치닥거리, 일, 애들 키우는 거. 그거밖에 안하고 살았어. 일은 계속했어. 손을 놓지 않았지. 지금도 애기 보잖아. 직장은 애들 때문에 못 가져. 그리고 제사가 많아. 1년에 8번이야. 그거 직장 가면 어떻게 빼먹을 수 있어. 그거 때문에 어디 가서 직장을 못 갖는 거야. 그래 나는 내가 살면서도 숙맥인지 자신을 몰라 어쩔 땐. 내가 이걸 하면 옆의 사람이 더 편하겠지. 이 생각을 만날 하고 살았어. (숙희, 57세)

숙희의 삶을 통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함을 새삼 확인했

다.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처연하고 대담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용기'와 '힘'이 있어 가능했다는 숙희의 말에는 '힘'이 느껴진다. 숙희는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했다. 여성들에게 '집'은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정체성을 모두 수행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공간이다. 숙희는 '겉내지 않고 용기를 발휘해야' '애들 키우고 시동생들을 키워내는 일'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숙희의 삶에 '유일한 일'이었다. 숙희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옆의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삭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간다. '딸', '아내', '엄마'라는 정체성의 공통점은 늘 타인을 배려하고 돌봄/보살핌 노동 속에서 성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신념체계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부여되는 자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강조되고 어머니라는 사회적 역할이 천성적인 모성 본능임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이혜숙, 2003).

예전엔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내 가족 때문에 나를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지.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고 남편이 있다는 걸. 그 전엔 나는 뒷전이고 남편, 애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살면서 내가 스스로 느껴진 거야. 나도 모르게 뭣 뻘에 그랬다는 건 없는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살이 어디로 가 그게. 남편한테 가고 애들한테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또 한 가지가 나이 더 먹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던 생각이 들어.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 도전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미숙, 43세)

근데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런 소릴 한다고 생각해. 옛날엔 뭐든지 움츠러들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뭐든 돈으로 연결해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든 못하냐.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 당시는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내가 살림을 일찍 했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아무것도 몰랐어.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내 울타리 안에만 살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살아봤으니까 그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알고 알지. 안 그러면 모르지. (미숙, 43세)

미숙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온 미숙은 이제야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고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성들은 미숙처럼 결혼제도 안에서 ‘무기력한 주체’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을 행위의 원리로 채택하고 자기희생을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여성성의 인습에서는 자아개념의 획득은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정체성의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자기희생의 인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장준미, 1997). 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끊임없이 정체성을 구성/재구성한다. 미숙은 이제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도전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며 살기로 했다.

‘나이’를 먹고서야 도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미숙은 젊었을 때 뭉든 돈과 연결해서 움츠렸던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한다.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뭉든 못 하겠냐’라는 말 속에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한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다.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는 미숙이 살아온 ‘시간’을 통해 구성된다. 미숙은 ‘나이듦’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 꿈꾼다. 미숙은 ‘살아봤기 때문에’ 삶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나이듦’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기획하게 해주는 것으로 작동한다. 과거의 ‘조건’을 현재 다르게 의미화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나이듦’으로 인해 삶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하기 틀려. 흰머리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면 그게 멋있는 거고. 내가 살아보니까 힘든 일 있어도 너무 막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살기가 힘들더라고. 저 사람은 성격이 그래 이 사람은 저래. 똑같은 수가 없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그 단계까지 오기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도통하는 것처럼. 내가 그 정도까지 오려면, 노력을 해야 돼. 처음엔 안 돼. 나도 그랬어. 나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돌이 돈도 알콩달콩 얼렁얼렁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저씨한테 하자고 하는데 안하거든. 그랬더니 꼭 당했잖아. 얼마나 썸통이야. 도통해야 돼. 참 힘들어. 그러니까 살면서 고손자한테도 배운다는 게 그 말이야. 며느리 얻으면 또 배워야 돼. 사위를 얻어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나도 멀었어. 더 배우면서 살아야 돼. 잘 융화가 되는 거. 이것도 배워야 돼. 또 손자 보면은 또 배워야 되고. 내가 땅속에 묻힐 때까지.
(숙희, 57세)

숙희에게 '나이듦'은 삶을 '도통'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숙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옴은 인생에 대해 '도통'하게 했다. 숙희는 자신의 '힘들었던 조건' 속에서 계획한 삶을 이루어 낸 자신에 대해 당당해 하며 삶의 '통쾌함'까지 느낀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 숙희는 자신과 반평생을 함께 해 온 남편에 대한 평가가 서슴없다. 숙희에게 있어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로만 존재하며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게 한 장본인이었다. 몇몇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의 '남편'에 대한 '평가'는 숙희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무조건 참고 노력하며 유지시켜 준 '아빠 역할자'다. 여성들이 '엄마'로 있어줄 때만이 가능한 '아빠' 자리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언젠가 '남편들'이 '아빠 역할'이 끝나는 날 "아무도 모르게 갖다 버릴지" 모른다. 앞으로의 삶에 '남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이제 더 이상 '아빠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은 성장해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아내'가 아닌 한 '여성'으로 살고자 한다. '땅 속에 묻힐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숙희의 말에 '인생'의 의미는 인간에게 끝없는 시련과 고민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의 '달관자'처럼 말하는 숙희는 그래서 삶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숙희는 자신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돌볼 정도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라기보다 굉장히 그거였던 거 같아. 내가 세운 변명거리,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야. 새로 시작 하는 거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순, 45세)

거기다가 대입을 할 게 없으니까 그걸 갖다 찍어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특별

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걸 갖다 짚어낼라 하면 자기 치부가 되니까. 그걸 나이듦에 대한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땐 내가 늙는 문제가지고 지금 못하고 앉았지.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40이 넘어가서 뭘 해. 자기를 이렇게 표출시켜야 되는데 용기가 자꾸 안 생기고 조금씩 쪼그라들고. 외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계단 하나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계단을 넘지 못 한 거를 나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정, 46세)

성순과 수정은 자기문제의 회피로서 '나이듦'을 의미화하기도 한다. 삶의 도전이 필요한 순간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나이듦'으로 변명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내내 '나이듦'을 핑계로 어떤 일을 '적당하게' 넘기는 순간을 직면한다. 어느 순간부터 '나이듦'이 삶의 '무리스러움'을 '무난히' 설명해 주는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

보바르(1970)에 의하면, 노쇠현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장애의 해명인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태도는 노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일종의 열등한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노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암시해주는 일체의 것들을 모욕으로 느낀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신이 젊다고 여기고 싶어 하며,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좀 이르다 싶게 자신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노년이라는 것은 많은 핑계거리가 되며, 여러 제약들도 덜어주므로 노쇠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고 포기하는 편이 덜 괴롭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노쇠현상을 흔쾌히 받아들여려 하지는 않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운 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인정하는 쪽을 택한다.

나이 먹으면 여자들하고 금방 친해져. 우리 나이에 만나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 그게 나이 먹어서 좋은 거구나 그런 건 있어. 그리고 부부기간에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구나. 30대는 왜 사람이 감출 건 또 감추잖아. 부부기간에도. 나이 먹으면 안 감춰져. 그게 서로 나이 먹으면 이런 게 나타나고 부부생활에 이런 게 있더라. 동질감을 느끼잖아. 아 나도 그렇다. 나도 그

렇다. 서로 여자들끼리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사는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 그리고 똑같은 생활처지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탁! 알아듣잖아. 그래서 아줌마가 좋아. 신세대 아줌마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그런 아줌마는 잘 모르지. 아줌마들은 하는 말이 다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야. (진주, 46세)

진주는 ‘나이’를 먹어 좋은 건 여자들과 금방 친해진다는 것이다. 진주는 여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삶의 조건’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탁 알아듣는 건’ ‘사는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는 진주의 말에는 결혼제도가 여성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는지 드러난다. 비슷한 상황과 맥락 속에 위치 짓게 하는 결혼제도는 여성들에게 결혼 생활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한다. 그래서 진주는 ‘아줌마’가 좋고 아줌마들이 금방 친해지는 이유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가부장제 결혼제도는 여성들에게 공통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면서 결혼제도에 오래 있을수록 ‘노하우’에 대한 습득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포맷 된 구조 속에 놓이는 것으로 비혼 여성들이 결혼을 꿈꾸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연유한다.³⁷⁾

2. 구체적 ‘삶의 조건’에서의 ‘나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를 가족관계를 통해 서술한다. ‘결혼’으로 ‘조건’지

37) 여성들이 결혼하면서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1억 4천만원,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1억 4천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평생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이만큼인데 정부의 지원금액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998년 2004년에 걸쳐 한국노동패널(KLIPS)에 포함돼 있는 19~45세의 가입여성 1773명의 데이터를 기초로 저출산 대책이 여성의 결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은 여성의 효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줘, 미혼여성이 결혼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총기회비용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았을때의 효용과 결혼했을 때의 효용 차이를 소비의 한계효용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1억 3천만원은 출산에 따르는 한계효용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결혼으로 인한 소비감소분, 심리적 불안감, 결혼으로 인해 소원해질 수 있는 친구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www. hankooki.com, 『한국일보』, 2007년 6월 27일자.

어진 여성들은 '가족중심'으로 관계 맺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남편과 자식을 '통'해 구성한다. '모성적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요구받은 여성들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모성'이 여성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것으로 여겨왔다. 여성이 나이 드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심각하게 맞물린다(김은실, 2001).

다른 게 없잖아.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기혼여성이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거 아냐. 그럴 때 다른 뭐가 없으니까 더더욱 남편과의 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 전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나도 역시 힘들면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슬픈 거야. 아주 암울한거야. 남편과의 관계만 안 좋으면. 그럼에도 남편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진 않았단 말이야. 사실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을 찾고 나를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의미를 딸걸 두고 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큰 의미가 안 되는 거야. 상처도 안 되고. 그게 남편과 관계가 중요하게 차지하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게 더 문제지. (성순, 45세)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결국엔 내가 늙는 게 다 남편 때문이야. 그게 대부분의 여자들한테 70%는 차지할걸. 대부분의 여자들이. 70%는 차지한다고 봐. 나머지는 본인의 탓이야. (진주, 46세)

성순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울하고 슬펐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우울한 삶이 남편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일을 찾고 자신을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늙는 것은 70%가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는 진주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말로 자신의 결혼 선택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성순은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혼여성들은 자식과 남편이 늘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성순은 만약 남편과 '한 공간 내에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관계로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다. 여성들은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다. 기혼여성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가족’이다. 기혼여성들은 ‘가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남편과 자식이 제일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여성들의 노동이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재경(1997)은 가족을 다른 사회제도와는 달리 성·임신·출산 등 인간의 재생산 활동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관련된 자연적인(natural) 제도로 본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인 것이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대안이 없다. ‘관계 맺기’ 하는 삶의 스타일을 요구받는 여성들은 ‘관계 맺기’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유지한다.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역할과 관련된 관계 맺기를 요구받으며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유지된다. 특히 ‘결혼제도’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한정지어야 하는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삶에 ‘가족’은 ‘유일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짜 20대 때는 치마 한번 입어보지도 않았고 화장을 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꾸며 본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나는 사실 나이 들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건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내 여성성을 이렇게 꽃피는 것 같다고. (성순, 45세)

성순은 젊었을 때 한 번도 입지 않은 ‘치마’를 ‘나이’가 들어서야 입게 됐다고 말한다. 성순에게 ‘치마’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남자같이’ 하고 다닌 20대에 입지 않은 ‘옷’이었다. 성순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치마를 입고 자신을 꾸미는 게 ‘여성성’인지 ‘욕망’인지 잘 모르겠다는 성순은 ‘나이’ 때문에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의 ‘외모 꾸미기’를 ‘남성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성성’을 이야기 한다. 성순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 ‘외모 꾸미기’를 하면서 ‘성적 대상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나이 대에 맞는 ‘몸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나이듦’에 따른 규범을 강화하기 때

문이다. 여성들은 젠더규범과 연령규범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 들어 사는 경험'을 하고 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았더라면 막연하긴 한데 싱글로 살아온 지금의 자신의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은 걸 상상한다는 게 제일 고문이야 그치?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훨씬 더 멋지게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은 많이 가졌다?! 정말 뭐라 그럴까 모든 걸 날 위해 투자한다고는 생각.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는데 나는 애들 양육을 되게 힘들어 했거든. 엄마역할이 참 힘든데.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길게 인생을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싱글이든 기혼이든 뭐 사실 어떤 게 낫다란 문제는 아니고 언제까지만 해도 내가 싱글로 안 살은 게 굉장히 나에게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내가 원하는 데로 살지 못했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애 양육을 하면서 또 다른 나의 어떤 큰 나란 개체의 또 다른 될 준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시간이 더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요새는 막연히 그렇지. (성순, 45세).

성순에게 자녀양육은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스런 '일'이었다.³⁸⁾ 자신이 '싱글'로 살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성순은 '결혼'은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투자하며 살고자 했던 성순에게 자식은 또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성순은 자식과 관계 맺기를 하는 동안 주체로서의 자신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자녀양육을 통해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모성'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식'이란 존재에 대해 여성들은 다양한

38) 이재경(1994)은 “사랑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그 정서적 욕구의 충족이 외부와는 단절된 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정은 소외와 억압의 장이 되기도 한다. 고립된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의 역할만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소외된 삶을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보상받으려 하고, 가족을 위한 맹목적인 배려와 사랑은 모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화된다. 특히 취업 주부의 경우에는 직장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이중 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들어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상화 된 가족관은 이들 여성에게, 그리고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가족원들에게 안락감을 주기보다는 갈등의 요인을 제공할 뿐이다.” 이재경,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가족철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 385.

‘조건’으로 맥락화하기도 한다. 성순은 자신의 ‘젊은’ 시절 억압으로 작용했던 ‘모성’경험이 현재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친밀한 관계’라고 말한다. 이에 성순은 현재 ‘자녀’가 다른 식의 ‘삶의 조건’이 되었다. 성순은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자녀가 다른 ‘삶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한다.

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들으면 그 감정이 닿질 않아. 그냥 그렇잖아 라는 거지. (은정, 46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이 먹어봐라. 경험인거 같아요. 10대도 지나가보고 20대도 지나가보고 그거지. 뚜렷하게 그건 없는 것 같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큰소리 칠겠어.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순이, 47세)

은정과 순이에게 ‘나이듦’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한 ‘시간’이었다. 은정은 ‘인생’은 ‘경험해야 아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나이듦’은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험들과 함께 ‘인생’을 알아가게 하는 ‘시간’의 과정이다.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경험을 체화하고 있으며, ‘가족’은 성역할의 체험공간으로 위계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여성들이 ‘가족제도’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적이며 하찮은’ 일로 취급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삶의 경험들을 간과한다. 여성들이 ‘나이듦’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구조화 된 가부장제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들은 여성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 의미화 되는 것이며, 여성들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 행위성이 드러나면서 여성의 경험은 역사가 된다. 여성들을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순응하는 공모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여성들은 가부장제 안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상하고 있다.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 ‘나이 들어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규범이 ‘여성’으로 나이 드는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드러난다.

B. 담론의 경계에서 '중년여성'으로 '통'하기

'중년여성' 담론은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담론이다. '범주화'된 '나이듦'의 규범은 여성들에게 '나이대에 맞는' '정상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규범은 성별에 따라 '나이듦'의 경험을 구성한다. 나이대에 맞는 '몸의 조건'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주어졌으며 이를 습득하기 위한 경험도 성별화 되어있다. '중년여성' 담론에 대한 분석은 여성의 '나이듦'이 어떻게 젠더화 되어 있는지 드러낸다. 젠더규범과 함께 담론화 된 '중년여성'담론은 여성을 '몸'과 동일시하며 여성들을 담론의 경계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미디어에서 '중년여성'에 관한 기사들은 건강관리나 몸 관리에 관한 뉴스들로 넘쳐난다. 소비사회는 '중년'을 범주화하여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 등장시켰다. '중년여성' 담론은 '여성'을 겨냥한 소비의 전략이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들은 '젊음'을 유지하라는 경고와 함께 생물학적인 노화와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년'은 '자본'과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중년여성' 담론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지속시키고 '중년'의 범주화는 유지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나이듦'은 권력체계 내에서 여성들을 연속선상에 위치 지음으로써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드러나는 여성들의 위치를 단일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이듦'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간과한다.

'중년'담론 속에서 여성들이 '중년'으로 '통'하는 경험은 어떤 맥락들을 통해서 가능한가. 가부장제가 '중년'이란 범주화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중년'에 대한 신체적 변화와 병적 증상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여성들이 '나이듦'을 체화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이듦'을 의미화하지 않는 여성, '나이듦'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줌마'란 호명으로 집단화하며 여성이 '나이들기'를 '선택'한 것은 '무성'(無性)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중년여성'은 누구인가. '생물학적인 나이'로 '중년범주'에 속하는 여성들은 담론에 대해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담론의 경계에서 ‘중년여성’이 ‘되어야’ 할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듦’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젠더화 된 여성의 ‘나이듦’은 ‘중년여성’ 담론 속에서 여성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 관계들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남성 중심 언어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언어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

‘중년여성’ 담론은 여성들을 경계 짓기하며 여성들의 ‘삶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중년’이란 개념으로 축소화한다. ‘젊음’과 ‘늙음’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여성들이 ‘취사선택’하는 담론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년여성’담론: ‘누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생물학적 나이’로 경계짓기 하는 ‘중년여성’ 담론은 ‘나이든’ 여성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나이듦’을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담론화를 통해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이윤 창출의 욕망을 드러내고 여성들을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다.

‘중년’의 범주에 속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제로 ‘중년여성’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여성’은 부정적인 담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담론으로서의 ‘중년’과 자신의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년여성’ 담론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타자화하여 ‘자본’으로 유통시키는 소비 전략이다.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년여성’ 담론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적당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폐경기 오면 여자의 상실이 와서 호르몬제 약을 먹어서 더 늘린다고 그러데. 나는 좋기만 하더구만. 53세에 안 했어. 더 편해. 아무느낌 없고 너무 편해 그냥. 나는 텔레비전이 사람 망친다고 그래. 이만한 걸 부풀려가지고 귀에 쪽 들어오게 그러는 거야. 텔레비전이 사람 망쳐. 약도 팔고 병원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이 뚜렷해야 돼. 혹하면 안 돼. 내가 들었을 때 증세가 좀 비슷하잖아. 들었을 때 그럼 금방 죽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더라고. 얼굴은 확 달아오른다 그러데. 그런 거 때가 되면 괜찮고 때 되면 오는 건데. 난 몰라. 안하

니까. 너무 편해 그냥. 사람마다 틀리겠지. 약을 먹었더니 암 걸렸다고 하더라고. 폐경 와서 나이가 먹으면 올 때 되면 오는 거고 갈 때 되면 가는 거야. 태어났다고 해서 안 죽진 못하잖아. 오면은 가는 게 있는 거야. 그래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 편해. 안하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기 달렸어. 약 먹으면 더 역효과가 와. (숙희, 57세)

53세에 '완경'³⁹⁾을 경험한 숙희는 매체에서 나오는 폐경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완경기'를 다르게 경험한 숙희는 텔레비전이 '완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풀리고 여성들을 현혹한다고 말한다. 숙희는 '완경'의 느낌을 '안 해서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없어지고 때가 되면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완경기 여성'에 관한 담론들은 생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주로 신체적 변화에 따른 '폐경기 증후군'으로 설명한다. 의학모델은 '완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까지 간주한다.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완경'은 여성의 몸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치료에 따른 호르몬 보충은 여성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며 이에 여성들은 의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극복 되어져야 하는 '폐경기 증후군'은 여성들을 대상화하며 '폐경기 클리닉' 산업은 번창한다.

'완경'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의 경고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완경'은 '극복'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완경'은 더 이상 재생산기능을 할 수 없는 '여성성'의 상실로서 경험되며 '젊은 여성' 혹은 '어머니'로 존재하는 여성들의 위치에서 더 이상 '여성(women)'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지식권력은 모든 여성들의 경험을 단일화하여 다른 방식으로 몸에 대한 경험을 갖는 여성들을 배제한다. 완경에 관한 '중년여성' 담론은 '중년여성'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재강화하면서 여성들이 몸의 변화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게 한다.

39)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궁을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둬으로써 월경이 끝나는 것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성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한국 사회는 여성을 생식기능과 관련한 존재로만 구성한다. 이에 여성학/페미니즘 운동 진영 내에서는 부정적 어감의 '폐경'이 아닌 다 이루었거나,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완성, 완주, 완경 등의 의미인 '완'자를 붙여 '완경'이라 부르고자 한다.

중년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확실히 몰라. 텔레비전에서 보면 꼭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잖아. 중년여성 어찌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오십견 오면 중년여성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아직 오십견이 안 왔어. 오십견이 오면 난 중년여성에 속할 것 같아. 솔직히 이 길로만 가고 싶진 않아. 때론 이 길로도 가고 싶어. 나쁜 길로. 이 길이 다 나쁜 길이야. 근데 그게 내가 혼자고 아가씨 같으면 독신이면 내가 이 길도 저 길도 갈 것 같아. 결혼해서도 가는 여자들도 있어. 내 주위에 수두룩해. 남편한테는 죄책감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난 애들한테 제일 죄책감 느껴 안 돼. 자식을 어떻게 볼까. (진주, 46세)

나 중년여성이야. 근데 나는 내가 중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나이는 중년이지. 근데 나 자신만 중년여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남들은 나를 중년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미숙, 43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진주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설명한다. 진주는 텔레비전에서 ‘오십견’이 오면 ‘중년여성’이라고 한 것에 기준하여 자신은 아직 ‘중년여성’이 아니지만 ‘오십견’이 온다면 ‘중년여성’에 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진주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몸의 경험’을 통해 ‘중년’에 대한 개념을 의미화하고 있다. ‘생물학적 나이’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 담론은 여성들이 ‘나이’로써 의미화하지 않는 맥락들을 배제한다. 진주는 ‘중년여성’에 관해 ‘알려진’ 지식들을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면서 몸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진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아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나쁜 길’로 표현되는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엄마’로서의 위치를 지켜내려 애쓴다. 미숙의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생각하는 ‘중년’과 실제로 ‘중년’이 되는 것은 다른 경험이다. 미숙의 말속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숙은 자신은 ‘중년’이지만 ‘중년’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자신을 중년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미숙의 말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한 말이었다. 담론화 된 ‘중년’ 개념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는 ‘중년’이 맞지만 ‘중년’을 설명하는 특징들과 자신의 경험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숙의 말을 통해 ‘중년여성’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년’은 ‘젊음’과 ‘늙음’의 경계선이며 ‘중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숙은 ‘젊음’/‘늙음’의 이분법에 저항하며 자신의 ‘나이듦’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여성들은 ‘중년여성’ 담론 속에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의미화하고 ‘중년여성’으로 통과하고 있다.

나 자신을 찾아야지. 나를 되돌아보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중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중년여성을 찾고 그래. 기반을 좀 잡고 애들 다 컸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생각하는 중년여성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중년여성에 대한 거는 돈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여유 있는 사람. 누구나가 다 그렇겠어요. 중년여성을 뭐라고 해야 돼. 다 사는 게 각각인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다 사는 게 틀린데. 왜 중년여성이라고 그러지? (순이, 47세)

순이는 ‘중년’이 계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순이가 생각하는 ‘중년’은 ‘기반을 잡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래를 예상하는데 있어서 현재 ‘기반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노후를 설명하는 것이 달라진다. 여성들이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각기 다르게 구성되는 의미이지만 이렇듯 ‘중년’은 ‘경제적 여유’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순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여성’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꾸준한 ‘몸의 관리’는 ‘중산층’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나이듦’은 ‘삶의 조건’에 따라 ‘위기가 찾아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중년’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담론화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는 ‘몸 관리’ 방식에 집중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 위치한 여성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이기 보다 일을 지속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육체’로 존재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늙음’을 방지하고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몸 관리’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데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

다. 한국사회에서 ‘중년’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삶의 여유를 누리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노동한 대가는 ‘성공한 중년’이 될 수 있다는 신화에 따라 젊은 시절을 ‘살아내 게’ 하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늘 허덕이고 가난이 지속된다. 자신의 몸을 매개로 노동하며 서바이벌 해야 하는 여성들이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게 됨으로써 두려운 것이다. 순이는 “왜 중년여성이라고 그러지?”라고 반문하면서 각기 다르게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한국사회는 유독 여성의 ‘나이 들고 있는 몸’에 집중하여 ‘중년여성’에 관한 담론들을 재생산한다. 순이의 말처럼 여성들은 다양한 층위(성, 계급, 지역, 연령 등)의 ‘삶의 조건’에서 ‘나이듦’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일하게 범주화하여 설명할 수 없다.

2. ‘중년여성’은 우울하다?: ‘중년’으로 ‘통’하기

‘중년여성’ 담론은 ‘중년’으로 범주화하여 담론화한 것이 ‘사실’이 되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무의식속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현대사회의 질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의식’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중년여성’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중년여성’의 ‘우울증’이다. 의학 모델들은 여성들이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 ‘상실’을 경험하면서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설명한다. ‘중년’이 되면서 자식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여 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공허감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 칭하며 여성의 ‘나이듦’을 설명한다. 그러나 ‘중년’의 ‘역할상실’은 특정한 계급에 위치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삶’은 젊은 시절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으며,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음을 기뻐했다. 여성들에게는 ‘엄마’나 ‘아내’ 역할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자’로도 살아온 ‘삶의 사실’이 존재한다.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은 여성들을 ‘병리적인’ 것으

로 간주하면서 치료하고 관리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담론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우울증'을 의미화하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우울증'은 '나이듦'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가 아닌 '삶의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고통의 '증거'이다.

여성들이 살아온 삶을 확인하는 과정은 '충만했던 욕망'이 '구체적인 상실'로 확인되는 '시간'일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소통'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직시한다.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담론화된 '중년여성' 담론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통'하고 있다.

중년여성이라고 그런 담론이 나올 때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기준들이.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중년여성으로 만드는 담론의 의도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런 여성문젠 떠나서 내 문제를 보면 나이로 내가 중년여성 거기에 맞지 않는다. 사실 중년여성이라고 범주를 일단 하고 들어가도 그러니까 양육이 끝나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중후군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어떤 큰 단계 단계가 구분지어진다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정말 자신에게 더 열중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런 하나의 중년여성. 굳이 있다면 중년여성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그야말로 엄마나 아내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중년여성으로 보는 거지. 그전에 가지고 있는 중년여성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성도 있겠지만 전체 여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중년여성을 범주화하는 것 부당함 같은 건 없는 거죠) 왜 그런 왜 필요한 건지 왜 만들었냐고. 중년여성이라는 거 만든 거 자체 거기서 말하는 (성순, 45세)

성순은 담론과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몸의 변화를 통해 '중년여성'을 '중후군'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중년여성'은 '양육'이라는 프로젝트 후에 '엄마'나 '아내'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여성들에게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성순은 '역할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담론은 '엄마' 역할이 끝난 여성들이 역할상실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마'나 '아내'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성순은 '중년여성'이라는 언어화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의 의도임을 강조한다.

나는 아무생각 없었는데 그거 체크해보니까 나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그거를 체크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가다 우울할 때도 있다. 가끔가다 사람들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이것도 아! 하고 비슷한 거 같고 그럼 세모. 그 다음에 화가 날 때 있다. 화가 날 때도 있거든. 짜증날 때 화나지 않나? 우울증은 아닌데도 아 그래 요즘 화가 좀 난다. 말하자면 이런 게 있다가 없을 때 물이 먹고 싶다가 안 먹고 싶을 때 물이 없으면 짜증나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 보고는 어 저거에 대입을 시킨다고. 사람들이 대입을 시켜서 보면 어 이거 나하고 같은 거 같아. 짜증났다 어떤 땐 짜증 안 나는데 그러면 체크가 되는 거잖아. 그날 운세에 따라. 그럼 이건 우울증 환자야. 50, 60%가 환자야.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사실 그건 우울증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느끼는 건데. (수정, 46세)

수정의 말처럼 '중년여성' 담론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보편적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중년'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범주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나이대'가 가까워 온다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갖게 한다. '중년여성' 담론은 모든 여성들을 경계 안팎에 위치치우며 '나이듦'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수정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우울증'에 관한 지식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미디어의 지식권력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우울증'이고 '병리적'이며 '부인 클리닉'의 '환자들'이다. 여성들을 단일한 특성으로 묶어버리는 '중년여성' 담론화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자연스럽게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게 한다. 수정은 '우울증'이 그날 '운세에 따라' 찾아오는 것임을 경고한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43살 때. 그때까지 시동생들하고 같이. 30대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니까 애들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동생들 다 나가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드라고. 나는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시동생들이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살잖아. 나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에 한방에서 살아가면서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들 다섯이나 되잖아. 우울증

이 오드라고. 우울증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눕고 싶기만 하고 뭐가 의욕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만 있고. 뭘 못해. 내과를 다녀도 알지도 못 하드라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내과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안 나아. 그때는 신경정신과 가는 것도 모르지. 그때는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어디 독일약국 가서 물으니까 당신 마누라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그랬대.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포부가 있고 꿈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누르고 살아서 지금 병이 생긴 거니까 자꾸 어디 데리고 놀러가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게 되나. 그러면서 약을 사 왔더라고. 그랬더니 머린 덜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우리 집에 우유를 넣는 아줌마가 있어. 내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내가 잠을 좀 덜자면 되잖아. 그거는. 낮에는 집에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수입도.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한 거지. 그 상태에서. 애들 가르치고 집 사야 되니까. 싫을 때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몸은 안 따라줘도 생각은 있는 거지. 그래야 산다는 게 애들 가르치고 산다는 게. 하다보니까 일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괜찮아 지더라고. 돈이 되고 하니까. 5년 해 가지고 집 샀잖아. 애들도 그냥 많이 못 사 먹이고 이러다가 맘대로 많이 사줄 수 있고 다 먹고 쓰고도 그때 80만원 쪼개지더라고. 내 돈을 만지고 쓰고 맘대로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니까. 우울증이. (숙희, 57세)

숙희에게 ‘우울증’은 온전히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였다. 숙희의 ‘우울증’은 지속되는 ‘가난’에 ‘30대’라는 ‘젊은’ 시절에 찾아왔다. 30대의 ‘젊은’ 시절 자신의 나아지지 않는 무기력한 현실에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삶에 대처하는 여성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헌신’과 ‘희생’을 자기 삶에서 놓지 않는다. 시동생들을 모두 보살피고 난 뒤에도 끝나지 않는 보살핌노동과 자녀양육은 우울한 몸으로 드러난다. ‘가족’이 자신의 삶으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삶은 가족의 안위가 여성들의 지위와 동일시된다. 숙희는 ‘젊은’ 시절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음에 절망한다. 숙희는 ‘우울증’ ‘중’에도 ‘희생’과 ‘헌신’을 놓지 않고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나눌 당시 ‘현재’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숙희는 ‘삶의 조건’이 개선되자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여성의 삶은 남성보다 훨씬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삶의 조건’이 존재한다. 여성들에게 ‘우울증’은 구체적 현실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우울증’이란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감정 상태이다. 생애주기 연령

주의 사회에서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우울할 수 있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에 의해 우울해질 수도 있다. 다만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위치'(성, 연령, 인종, 계급, 지역 등)가 남성보다 '우울증'을 겪게 하는 기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며 그것은 '나이들'의 특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우울증'은 '중년여성'에게 온전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망'을 '힘'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중년은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년, 노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년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적으로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45세쯤 자궁적출수술 했을 때도 별 느낌 없었어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등 그런 느낌 별로 없었다. 친구들 만나면 나이대별로 얘기들이 다 달라요. 30대 때는 사는 얘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면 멋있게 살자. 남은 세월 재밌게 살자는 그런 얘기들 해요. 60, 70살을 먹어도 여자는 가꾸면 여자라고 생각해요. 몸이 힘들어져서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누구나 다 먹는 거니까 피해갈 수 없고 나름대로 즐겁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정애, 51세)

'중년'을 인생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정애는 '중년여성' 담론을 자신의 경험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삶의 과정 '중'인 '중년'에 위치한 정애는 살아가면서 나이대별로 관심 갖게 되는 주제가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정애의 말처럼 '중년'은 살아가는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삶의 어떤 '과정'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 '성공'이나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중년'의 특징으로서가 아닌 '삶의 과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45세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정애는 담론과 다르게 구성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자신에게는 '별 느낌 없는' 경험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가 자신의 경험은 담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자궁'은 여성들을 '여성(women)'이게 하는 전부이며 그 자체이다. 고대에는 여성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을 '자궁'에서 찾아냈다. 여성들의 다양한 질환상태를 '자궁'과 연결하여 '자궁'을 소유한 여성들을 통제하고

처단했다(라나, 1999). 가부장제 사회는 '자궁'을 임신, 출산, 재생산과 동일시하여 여성을 생식기능 담당자로 자리매김하고 남성규범의 통제에서 관리 되도록 한다. 재생산기능과 모성으로의 역할만을 상정하며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탈 여성화한다. '중년여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부정적으로 담론화 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정애처럼 담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나이듦'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성들은 은폐하는 것이다.

여자가 가정의 주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찡그리고 인상 쓰면 안 돼.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뭔가를 찾았을 때 찾아서 일을 할 때 그러면 나는 50이 됐을 때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찾으려고 해. (수정, 46세)

'현모양처'가 꿈이던 수정은 '엄마'와 '아내'로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50대가 됐을 때 행복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수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주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생각했던 수정은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오히려 수정은 '역할상실'의 경험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찾는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수정의 생각은 실로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들은 위계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모성'으로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수정은 '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수정은 '주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다. '주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게 했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수정은 '직업 갖기'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난 우리 아저씨 바람만 났으면 좋겠어. 바람만 나면 바로 그 여자한테 가라고. 아이구야 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가서 그럴려고. 우리 집이 이러저러한 집이니까 와서 잘 살아주라고. 나 구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보따리 싸들고 갈라

고. 근데 안하는 거야. 안 해. 안 해 아주. 안하드라고. (숙희, 57세)

숙희에게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로만 존재하는 관계이다. “바람 좀 낮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안나” 라고 말하면서 숙희는 앞으로의 삶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고자 한다. 남편이 바람만 퍼준다면 ‘나 구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할 것이라 말하는 숙희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의미한 관계가 아님을 말한다. 그리어(1999)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 대해 적극적 선택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숙희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오는 세월 동안 ‘사라져 가는’ 자신을 직면해야 했다.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가족을 매니지하는 ‘종속적 관리자’가 된다. 가정 경영 및 관리에서 전업 주부는 합리적인 소비 전문가로서 주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경영 관리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문옥표, 1992). 남편의 지위를 위해 ‘한평생’을 애쓰지만 ‘무기력한’ 남편들은 점점 더 여성들의 ‘관리능력’만 키워줄 뿐이다. 여성들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계로 작용한다. 중산층 계급의 여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가정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가정경영’ 도구들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끝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 ‘아내’의 위치는 ‘남편’과 상관없는 것으로서이다.

한 50이 넘으면 다 세상이 이쪽저쪽에서 중간쯤에 서있는데 이제 40대 후반에서부터 50중반까지는 세상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연로하신 우리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게 될 시기가 돼. 왜냐면 우리가 곧 닥칠 시기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뒤로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보고, 느끼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세상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영미, 50세)

영미에게 ‘중년’은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다. 영미에게 ‘50’은 인생의 중간이며, 과거와 미래의 연결통로이다. ‘보고 느끼며’ 살아온 세월은 자

신보다 '나이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며, 자신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 정립하게 한다. 피테는 "인생의 최초와 최후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회고는 현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놀람의 감정을 부활시켜준다"고 말했다. 인생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하고 개인적인 행위이며, 일부 사람에게는 과거가 평화롭게 잠들기 위한 표지판이 되기도 하며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조그마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튜더산달, 1999). 영미가 개념화하는 대로 '중년'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나이들'은 더 이상 공포스런 '미지의 것'으로 이미지화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담론화 된 '중년여성'은 실제 구체적 현실에서 구조화되는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고, 다양하게 맥락화 되는 여성들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을 은폐한다. 가부장제 사회가 '중년여성'이라 호명하며 담론화하는 것은 '성별'과 '나이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드러나는 남성사회의 의도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균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C. '나이들'의 재개념화

1. '나이들'에 대해 긍정하기 그리고 말하기

'나이들', '늙음'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나이들'을 말하고 긍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이 드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늙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해 '나이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의 '나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괴물화' 되지 않을 것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나이들'에 따른 연령규범이 존재하면서 '나이에 맞는' 과업을 강제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생애과업은 개인의 삶을 한계 짓고, 연령규범을 유지하며 재생산한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어른스러워’야 한다. 한국 사회는 ‘나이듦’의 미덕을 운운하지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몸은 ‘나이 들지 않은’ ‘젊은 몸’이다. ‘나이’ 들어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몸’이 되기 위해 ‘몸’은 늘 관리의 대상이 된다. ‘40대’가 ‘20대 같은 몸’을 갖는 것이 화제가 되는 사회적 시선은 ‘40대’는 결코 ‘20대’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40대’는 ‘40대’일뿐 결코 ‘20대’가 될 수 없다. 단지 ‘20대 같은 뿐’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나이듦’의 이중규범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나이듦’을 어떻게 말하고 의미화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나이 드는 거? 세상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보는 눈이 더 깊고 넓어지는 거지. 결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결코 나이 들어서 서글픈,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서글퍼진다고 하는데 난 서글퍼진다고 보진 않아요. (영미, 50세)

영미는 ‘나이듦’은 ‘세상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나이듦’에 따른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다. 개인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필요한 재원이 되기 위해 사회 질서를 따른다. ‘나이듦’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영미는 ‘나이듦’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미는 ‘나이듦’에 대해 긍정한다. 자신에 대해 ‘소통’하고 유연하게 ‘세상살이’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이듦’을 ‘서글픔’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영미는 자신의 ‘나이듦’을 ‘서글픔’이 아닌, “인생의 현미경”을 갖게 된 것으로 의미화한다. 영미는 지나온 삶을 통해 ‘나이듦’이 ‘미덕’이 되었지만, 모든 이들이 영미처럼 ‘나이’를 먹고 ‘나이듦’의 ‘연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관용과 이해와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회적 기대도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거나 부른다”는 알튀세르의 이론에 따라 ‘나이든’ 개인을 ‘노인’이라 호명하며 ‘무욕망’으로 간주한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노인은 ‘노인답지’ 않은 ‘노

인'이 되는 것이다. '노인'의 호명은 노인이 '노인다워야' 한다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노인'이라고 호명되면서 개인은 사라지고 집단만 존재한다. '노인다움'과 '늙지 않는' 몸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개인은 이미 '몸'에 갇혀 있다.

그 나이 돼 보라. 이런 얘기가. 너도 그 나이에 가서 경험을 해보야 안다는 말이야. 내 나이 돼보고 내 입장 돼 보라. 경험은 그 당시는 싫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경험은 해볼 건 또 해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나이 드는 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어. 시간을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 없는 것이고. (진주, 46세)

'나이듦'은 우리가 삶에 대해 추측하는 몸, 생각, 관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경험은 해볼 건 해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진주는 경험은 쌓을수록 삶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흔하게 던지는 '내 나이 돼 보라'라는 말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대변한다. 사실 '내 나이 돼 보라'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듦'을 체화하여 의미화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나이 들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나이듦'을 말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진주는 '나이듦'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많은 경험들 중에 선택적으로 기억된 것을 경험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성들은 '나이듦'을 구성할 때 기억된 경험을 현재의 자신으로 의미화한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성된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해석하면서 사회 질서를 파악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나 종이접기 시작할 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50세에 시작했잖아. 지금이 6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40대같이 살아요.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60대중반이면 다 할머니 아냐. 아직도 그냥 40대처럼 바쁘게 사는데. 늙지 않고 사는 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똑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늙는 거다, 나이 먹는 건 나이 먹는 거다. 늙는 건 늙는 거다.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이, 47세)

순이가 현재 하고 있는 '종이접기'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한 계기가 되었

다. 자녀를 통해 시작하게 된 ‘종이접기’는 순이의 ‘직업’이 되었다. 순이가 ‘종이접기’를 시작할 때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나이는 50대였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며 ‘젊게’ 사시는 선생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나이 들어감’을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공통점은 “일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되는 것이었다. ‘노동육체’로 존재하는 여성들이 나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지 못함을 예고하는 것이다. 50대가 되는 것을 ‘늙음’의 표식으로 상징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순이의 선생님은 ‘나이듦’을 다르게 보게 한 ‘역할모델’이다. 우리는 ‘나이듦’의 ‘적당한’ 모델이 없다. 담론화 된 ‘나이듦’을 체화하여 규범에 따라 서바이벌 하는 것이 ‘보통의’ 삶으로 점철된다. 그러나 순이는 “나이 먹는 건 나이 먹는 거다” “늙는 건 늙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한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아플 땐 나이를 먹는 구나 느끼고 한편으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게 이중성인 것 같아. (그렇다면 나이 먹는다는 건 뭘까) 나이 먹는 건 육체가 늙어가는 거지. 정신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생각. 예를 들어 동창을 만나면 그때 성장이 멈추고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는 육체가 늙어가지 정신은 항상 젊다고 생각해. 육체 껍데기만 늙어가는 거지 정신은 (그럼 육체는 별) 육체도 중요하지. 젊은데 비해 육체가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지. 육체는 빨리 늙어 가는데 마음은 멈춰버리잖아. (미숙, 43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늙어.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고. 세월이 오는 걸 받아들이면 만약에 공 같은 거 오는데 오잖아. 딱 받으면 덜 아픈데 피할라 그러다가 받으면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살면서 터득한거야.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굴 자체가 밝아. 불만을 가지고 살면 얼굴에 다 나와. 순리대로 받으라 그래. 그게 더 젊어진다고. 나는 내가 살면서 그랬어. (숙희, 57세)

내가 아니다 라고 보다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느낄 때도 내가 몇 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흐르는 대로 사는 거지. 자연적으로 다가오면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어떡해. 내가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어차피 가는 건데 세월은. (은정, 46세)

‘나이 먹는 것은 육체가 늙어가는 거지 정신은 항상 젊다고 생각해’, ‘공같은 거 오는데 피할라 그러다가 받으면 더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몇 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사는 거지’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나이듦’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맥락화 된 ‘나이듦’의 담론 안에서 여성들은 각각의 ‘나이듦’을 구성한다. 여성들이 구성하는 ‘나이듦’의 맥락은 담론이 부여하는 의미체계와 다르다. 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자신의 ‘나이듦’에 대해 새롭게 의미부여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듦’에 대해 긍정하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주체로 자신의 ‘나이듦’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힘’은 여성들이 살아온 경험과 ‘나이듦’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는 여성들의 경험이 ‘역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는 ‘나이듦’을 단일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담론화하고 있는 구조를 문제화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나이듦’의 다양한 의미들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2. ‘나이듦’의 재개념화

한국 사회에서 ‘나이듦’의 담론이 문제적인 것은 ‘나이듦’을 ‘상실’로 경험하게 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은폐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러 변수들의 고려 없이 ‘나이듦’을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이든 몸’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가 개념화하는 ‘생산성’의 개념은 많은 이들을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나이든’ 노동자를 위한 다른 방식의 개선보다는 빠른 방법으로 손쉽게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전략들을 취한다. ‘나이’가 초래하는 어떤 결함들은 쉽게 완화될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 안경을 제공하고, 서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의자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때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일에 재적응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보바르, 1970). 그러나 사회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배려보다는

‘신체적 기능약화’라는 개인적 차원으로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여 개인의 노동 단절을 유도한다.

‘나이든 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노동현실은 ‘나이듦’을 ‘상실’로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 ‘은퇴제도’는 국가가 개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나이듦’에 따른 차별을 가장 ‘치명적이고 은폐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⁴⁰⁾ ‘은퇴’제도가 유지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따른 공포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은퇴’제도는 각 개인들이 해오던 모든 ‘역할’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나이’가 드는 것은 삶의 한계선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나이듦’에 따라 구분된 사회시스템에 따라 우리의 욕망도 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이듦’의 사회구조는 ‘나이듦’의 이데올로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조건으로 삶, 욕망, 경험 등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론은 재구성될 수 있다.

나이 먹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힘들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니까 무심코 나오는 말이지. 나이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 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이 때문이기보다는 담

40)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복지중심 지원 대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근 ‘일하는 노인’을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990년대 후반 고령 노동력 활용이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깨달은 영국은 ‘늙으면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영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던 기업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여개의 기업이 연령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일찍부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핀란드는 좀 더 폭 넓은 접근을 시도해 왔다. 1980년대부터 국립직업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늙음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고령 노동자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중심 문화를 가진 일본 역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등은 연령이 올라가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전통적인 연공서열제적인 임금구조와 승진시스템이 오히려 고령자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국은 노인부양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 전 세계 평균 22.7%에서 2040년 46%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작용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조기퇴직 제도를 금지했다. 노년층을 ‘돌봐야 할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www. donga.com, 『동아닷컴』, 2005년 1월 10일자.

배를 많이 뿔거나 술을 많이 먹었거나 어떤 생활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어떤 내용의 문제인 거지. 어떻게 생활을 해왔으면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 정말 만약에 늙은 여성을 찬양하면 아마 그러진 않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남성의 욕망에 모든 여성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나름대로 협상도 하면서 내 맘대로 늙어 갈 거라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자길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비난받지 않는 사회를 원하지. (성순, 45세)

성순은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무조건적인 수식어로 튀어나오는 '나이가 먹어서'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에 대해 비판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어떠한 내용이든지간에 '나이듦'으로 설명된다. '보편적 상태'로 설명되는 연령주의 사회에서 성순은 자신의 '나이듦'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길 원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듦', '늙음'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생산력'으로의 '젊음'의 가치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이든' 개인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늙음'을 말하지 않고 '젊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늙지 않고 영원히 불변의 자아로 존재할 수 없다. '젊음' 몸으로만 존재하도록 강제하는 사회는 여성들에게 '젊음'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도록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긍정한다. 여성들에게 '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을 유지케 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들을 몸을 통해 체화했다. 여성들 스스로 '젊음'과 '늙음'에 대해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 몸이 아닌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래 볼 때 자기한테 온다는 느낌을 터득을 한 게 내가 공을 탁 치면 내가 더 힘껏 치면 더 힘껏 오잖아. 살짝 치면 살짝 오고 내가 그 느낌을 터득을 했다니까. 철학이야.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철학이야. (숙희, 57세)

나이들은 그냥 자식들이 다 커가고 집안이 기반 잡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야만이 자식들도 커가는 거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웬만큼 기반 틀도 잡히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나이하고 바꾸는 거야. 내 나이하고 바꾸는 거. 내 청년하고 내가 일군 가족 그런 것이 다 성장시키는 것이 내 나이하고 바꾸는 거잖아. 나이들이란 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야. (미숙, 43세)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고 있음’을 말해오지만 구체적인 뜻보다 내 삶을 무난하게 설명하기 ‘적당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돌아본 여성들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나이듦’을 구성하는 방식은 담론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통해 의미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 사람처럼 돈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다 그렇게 말 하는데 다 자기 삶 아냐. 주어진 삶. 그거 따라가야지 뭐. 지금 내가 늙어서 돈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가요 그때 가봐야 알지. 몸은 좀 불편해도 정신만 말짱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양쪽 노인네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돈이 있어도 필요 없고 돈이 없어도 필요 없어. 어차피 갈 땐 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 나이 들어 사는데 그렇게 불편 없다고 생각해요. (순이, 47세)

순이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노인답게’ 늙어가는 것으로부터 탈피한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놓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의 ‘노년’이 전제된 것이다. ‘나이듦’을 ‘죽음’의 시간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여기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수적이다.

‘나이든’ 개인은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늙고 나약함’이 ‘노인’과 동일시되는 우리사회의 지배문화는 이미 ‘젊음’의 가치를 선택했다. 이러한 ‘나이듦’의 이미지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연령 규범’에 의해 유지된다. 우리의 삶을 강제하고 있는 ‘연령규범’은 문화 속에 자리 잡고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다움’을 유지하도록 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되기를 고대한다.

V. 결론

개인은 상상력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담론을 재구성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경험은 담론 안에서 구성되어 의미화 되는 것으로 모든 여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구성하지 않는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도 주체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동일한 나이대의 동일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정해진 삶을 살아가도록 시스템화 된 사회는 각기 다르게 조건 지어진 여성들의 삶을 배제하고 단일한 것으로 '여성'을 범주화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나이들'은 자신의 구체적 맥락에서의 '경험'과 '기억'으로 체화된 것이다. 여성들이 위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이들'에 대한 의미화가 구성된다. 여성들의 경험은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서 담론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여성의 '나이들'이 부정적으로 담론화 된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나이들'을 듣는 것은 담론의 구조와 맥락들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담론 안에서 경험을 가지며 경험을 통해 주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젠더화 된 '나이들'으로 구성되고 있는 '중년여성' 담론에 위치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나이든다'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는 젠더를 체화하는 방식처럼 수행적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이'의 파악은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일상적인 삶에 작용하는 통제수단이 되었다. '나이'에 따라 시스템화 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인생과업을 나누며 개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은 일생을 '나이들'의 경계에서 '나이대'에 맞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들'에 따라 세대를 범주화하고 각 세대에 맞는 '적합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

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통제 전략이다. '나이듦'의 범주화는 '정상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삶에 자연화 되었다. '평범한', '정상적'이라는 규범화의 전략은 '다르게' 상상하는 삶을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개인에게 작동하면서 다르게 구성되는 삶의 맥락들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나이듦'을 '자본화'한다. 여성의 몸은 '젊고 건강한' 것으로만 존재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의 권력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소비주체로 등장시켰다. 미디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여성의 몸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경쟁력 있는 몸'이 되라고 경고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것'으로만 유효한 여성의 '나이듦'은 소비시장의 전략으로 아주 유효하다. 날로 커지는 성형 산업과 미용 산업은 여성의 '늙음'을 지연시키는 소비전략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 스스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젊음'을 욕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여성들에게 '늙음'과 '젊음'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여성의 '나이듦'은 남성들과 달리 젠더화되어 구성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일생 동안 '젊은' 여성이기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에 위치 짓는다.

셋째, '중년여성' 담론은 '나이듦'을 범주화하는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의 전략적 의도로 구성된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생애주기 연령주의 사회에서 '나이듦'의 범주화의 맥락으로 담론화 된 '중년여성' 담론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담론화 된 것이다. '중년여성'을 대표하는 '빈둥지 증후군', '폐경' 등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에게 '몸'은 '여성성'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육체'로 존재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들에게 '젊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몸 관리'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 데 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그리 넉넉치 않다.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부정적으로 담론화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범주화하는 '중년여성' 담론은 각 주

체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맥락들을 은폐한다.

넷째, 여성들이 '경험'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들의 축적된 생애에서 '기억'과 '해석'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여성들은 '나이듦'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를 해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한다. 여성의 '나이듦'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여성들의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비전 없는 미래'를 맞게 될 위기에 놓이도록 하는 결핍된 사회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가부장제 권력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 수단이 됨을 확인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몸을 통해 체화하며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늙음'을 의미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 몸이 아닌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생애주기 연령주의로 시스템화 된 한국사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욕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듦'은 '나이 들어버린' 어떤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성애적 결혼제도에서 '정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나이듦'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제도 밖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을 간과하는 것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듦'을 맥락화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상성'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결혼제도 안에 위치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를 갖는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족제도' 안에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조건'을 드러내고 '나이듦'을 새롭게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선남(1997). 『매스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 강수택(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 고갑희(1998).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여/성이론』 통 제 1호. 도서출판 여이연.
- 김민정(2001). “아줌마? 아줌마!”. 『여/성이론』 제 4호. 도서출판 여이연.
- 김상봉(2002).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한길사.
- 김은실(2001).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며”.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제16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_____(2003). “몸을 통해 문화를 본다”.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 _____(2003). “아줌마들이 만드는 탈성별화의 세상을 기대하며”. 『당대비평』 23호 삼인.
- 소광희(1996).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 심영희(1994). “일상생활과 권력”. 『사회비평』 12호. 사회비평사.
- 송무 외(2003). 『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도서출판 박이정.
- 이재경(1997).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가족철학: 남성철학과 여성 경험의 만남』.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옥라(2001). “한국사회에서 나이들. 그리고 여성의 나이”.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 하나의 문화 제16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조주현(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조형(1992).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의 성격”.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정희진(2003). “나이들. 늙음 그리고 성별”. 『당대비평』 22호. 삼인.
- _____(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 여성학강의(개정판)』. 도서출판 동녘.
- 허라금 외(1999).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수학적 능력』. 이화여

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황익주(2003). “차이와 불평등”.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 학위논문

남상희(1990). 『권력, 성 그리고 노동: 뚝방동네 이줌마들의 삶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운상(1997). 『여성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이선(1999). 『담론이론을 통해 본 ‘아줌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현정(1995). 『여성주의 윤리학에서의 ‘자아’의 개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해리(2005). 『여성 노인 노동력의 배제와 통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전문이(1998). 『여성 호칭/지칭어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차우미(1998). 『기혼여성의 일상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변형과 지속: 대구지역 30대 중산층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최현진(2004). 『성형수술자의 경험을 통해본 중년 여성의 ‘나이듦’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선경(1996).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3. 학회지

김현우(2004). “여성주의 생애접근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 15권. 신라

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권수현 · 이정희 · 이준원(1996). ““외모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20대 여성의 성형수술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논집』 제30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 237~278.
- 김기범 · 차영란(2003). “한국 가정주부들의 심리적 특성분석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사모님. 아줌마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권 3호. pp. 77~99.
- 김명소·성은현.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vol 4. no.1. 한국심리학회. pp. 41~55.
- 노영주·한경혜(2000). “50대 중년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1호. pp. 1~22.
- 박중우(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 노인문제”. 『사회과학』 제11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51~68.
- 박홍주(200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 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회』 제20권 2호. pp. 141~178.
- 백승기·김승희(2001).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 10집. 문학과 지성사. pp. 157~195.
- 이금룡(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제26집. 한국노년학회. pp.143~159.
- 이경혜(1992). “중년기 여성의 폐경 경험”. 『한국 여성학』 제8집. 한국여성학회. pp. 105~134.
- 이재경(2000). “성별화된(gendered)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제12 집 2호 . pp. 81~98.
- _____ (2002). “중년기 여성의 생애과정과 노년”. 『가족과 문화』 제14집 3호 . 한국가족학회. pp. 53~67.
- _____ (2004).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호. pp. 82~117.
-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한국여성학회』 제12권 2호. 한국여성학회. pp. 79~117.

- 윤형숙(1998).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정체성”. 『여성연구』. 제6권 1호.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 69~92
- 최상진·김지영·김기범(1999). “한국 사회에서 이즘의 표상과 이즘론”. 『한국여성학회지: 여성』 vol.4. no.1. 한국심리학회. pp. 56~67.
- _____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한국 이즘 분석”.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vol. 20. no.2. 한국심리학회. pp. 327~347.
- 한경혜·노영주(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제12집 1호. 한국가족학회. pp. 67~91.

4. 번역서

- 노엘 샤텔레(1998). 『맞춤육체』. 박은영(역). 사람과 책
- 나카무라 유지로·우에노 치즈코(2004). 『인간을 넘어서』. 정화경(역). 당대.
- 로지 브라이도티(2004). 『유목적 주체』. 박미선(역). 도서출판 여이연.
- 러빈 릴리안 B.(1990). 『중년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 김용미(역). 정우사.
- 미셸푸코(1975). 『감시와 처벌』. 오생근(역). 남남출판
- 버나드 미리엄(2003).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이해』. 여성한국사회연구소(역). 경문사. 2003.
- 수잔 보르도(199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시몬 드 보부아르(1993). 『제 2의 성』. 조홍식(역). 을유문화사.
- (2002). 『노년』. 박혜영. 홍상희(역). 책 세상.
- 시즈오 마치자와(2002). 『마흔의 의미: 마흔, 불혹의 나이인가 유희의 나이인가』. 이정환(역). 나무 생각.
- 안네마리 피퍼(1977). 『페미니즘 윤리학은 있는가?』. 이미원(역). 서광사.
- 앤 브룩스(2003).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김명혜(역). 한나래.
- 이소영·정정호 공편(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 우어줄라 쇼이 위움(2003). 『여자로 살기. 여성으로 말하기: 521명의 여성들이 들려주는 의 지혜』. 전옥례(역). 현실문화 연구.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사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

- 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역). 새물결.
- 앨리슨 M 재거. 아이리스 마리온 영(2005). 『여성주의 철학 1. 2』.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 윌리엄 새들러(2000). 『서드 에이지. 마흔이후 30년』. 김경숙(역). 사이
- 장 보드리야르(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역). 문예출판사.
- 조셉 브리스토우(2000). 『섹슈얼리티』. 공선희. 이연정(역). 한나래.
- 조안 W. 스콧(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역). 『여성과사회』 (13호). 한국여성연구소.
- 캐롤 길리건(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역). 동녘.
- 캐럴라인 냅(2003).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임옥희(역). 북하우스
- 케티 콘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엮음(1997)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경하 외 12인(편역). 한울.
- 크리스 윌링(1993). 『몸의 사회학』. 임인숙(역). 나남출판.
- 크리스 워던(1993).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조주현(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크리스토퍼 래쉬. 엘리자베스 래쉬 쿨(2004). 『여성과 일상생활』. 오정화(역). 문학과 지성사
- 퍼트리샤 튜더산달(2006). 『여자나이. 50』. 김수경(역). 에코리브르

5. 외국문헌

- Bartky. Sandra(1990). *Fem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 Browne. Colette(1998). *Women, Feminism, and Aging*. New York: Springer.
- Csordas(1994). “Introduction: the body as representation and being-in-the-world”. *Embodiment and Experience*. Cambridge.
- Fiore. R(2003). “Lived body versus Gender: Reflection on Social Structure and Subjectivity”. *Recognition, Responsibility, and Rights(Feminist Constru ction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artman. A.(1990) "Aging as a Feminist Issue". *Social Work* 35. pp. 387-388.
- Mann. P.(1994). *Micro-Politics: Agency in a Postfeminist Er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London.
- Martha McCaughey(1997). "Changing Our Minds about Our Bodies: What Can Feminism Learn from Self-Defense?". *Real Knockouts; The Physical Feminism of Women's Self-Def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yers. D.(1998). "Agency".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Alison M. Jagger . Iris Marion Young & Malden.(Eds). Mass: Blackwell.
- Riley. Matilda White(1987).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 Scott. Joan W.(1992). "Experience". Judith Butler & Joan W. scott(Eds). *Feminist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_____ (1988).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6. On-line 자료

- 경향신문(2006). 검색일 2006년 4월 18일. [www. kinds.or.kr](http://www.kinds.or.kr).
- 연합뉴스(2005). 검색일 2007년 3월 23일. [www. stoo.com](http://www.stoo.com).
- 한국경제신문(2006). 검색일 2006년 4월 18일. [www. kinds.or.kr](http://www.kinds.or.kr).
- 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2002). 검색일 2007년 3월 5일.. [www. facesurgery.org](http://www.facesurgery.org).
- 조선닷컴(2005). 검색일 2007년 3월 5일. [www. chosun.co.kr](http://www.chosun.co.kr).
- FNN(2007). 검색일 2007년 3월 5일. <http://fnn.freechal.com>.
- 국민일보(2006). 검색일 2006년 4월 18일. [www. kinds.or.kr](http://www.kinds.or.kr).
- 이데일리(2006). 검색일 2006년 4월 18일. [www. kinds.or.kr](http://www.kinds.or.kr).

ABSTRACT

A Study of Gendered 'Aging' in Life-Course Ageism Society

Chun, Myoung Ja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discourses meaning of 'aging' in this life course ageism society as women's experience. By uncovering the discourse through women's voice, this paper searches out a possibility of transforming power structure of discourse.

All the interviewees on this research understood 'aging' through 'experiences' and 'memories' imprinted in one's concrete context. That is, the meaning of 'aging' could be captured through women's diverse and concrete realities. Reorganizing women's experiences through discourse is already an interpretation. Thus, this research is about understanding the power structure of discourses through women's experiences. As this society makes discourses negatively on women's 'aging', hearing women's aging through women's voice would be uncovering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discourse. Women experience within these discourses and from these experiences women became agency.

Negative discourse formula of women's 'aging' in Korean society give warnings to women to bear up 'femininity' and keep fitness of 'young body'. However, women contextualize one's body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Women's experience of 'aging' varies as they are situated in different social

positions (sex, age, race, class, region etc) and the context of 'aging' varies within their concrete 'living conditions'. Therefore, women's differences in comprehending their 'aging' makes a fissure in this unified life course ageism society.

Based on this think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lives of women in their 40s and 50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situated as 'middle age women' in gendered 'aging' discourse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how this society interprets women's 'aging'.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ge' in Korean society prescribes personal identity and delimit social position. Grasping 'age' is important in making relation with other as it is an embodiment similar to embodying gender. Utilized as a control device in people's life, age serves as an 'universal' standard for individual who live in a systematized life course society based on 'biological age'. People live within the limits of 'aging' and try to bear 'ordinary' life fitted along with this 'age' based life course. In this life course ageism society, every individual interpret other people's socialized experience as one's own. Thus, women's experience emphasize the social discourses of 'aging' and from this process women could differentiate things between she chose and not. Through their life course, women confronts the situation of being aware of 'aging' rather than be aware of 'aging' within this culture of 'aging'. Be it out of its imaginative power, individuals keep their social order by interpreting experiences and reorganizing discourses.

Second, this capitalistic patriarchal society 'commercialize' women's 'aging'.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power of capital has made women's body a commodity and also an agency of consumption. Mass media are keep sending images of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controlled women's body and enforce women to keep themselves 'a body with competitive power'. Thus, women in their middle ages become targets of this consumer market's strategy. Through this ever growing industries of plastic surgery and cosmetics women find way to control their 'oldness' and 'youthfulness' as a choice.

Third, the discourse on the 'middle age women' are being categorized through 'middle class'. The representative term for 'middle age women', for example, 'empty nest syndrome' and 'menopause' were made by and from middle class women. As for women interviewees from this research 'body' was a 'laboring body to earn one's bread and living' rather than a place fulfilling 'femininity'. To consume mass media's 'body shaping' commodities, women need 'money' and 'time'. However, women spend most of their time in 'labouring' and women who have little resources earn money relatively low. Thus 'middle age women' discourse covers up the manifold of women's contexts.

Forth, women's construction of their experiences is done through the selection of 'memories' and 'interpretation'. Women empower themselves through 'aging' experiences as they interpret their relationships and lives. The problem that arises from women's aging is not the aging of women's bodies but the existence of the social structure that puts women in the crisis of the 'future without vision'. In this sense, women's bodies become a means of survival in the power grid of patriarchy. Women interpret their lives as they embody concrete realities through their bodies. Women give a meaning to youth and aging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youth and aging and hope for a society where they would be able to display not their youthful bodies but aging bodies. It is a wish to move from a society of life course ageism that forces women to maintain 'youthfulness' to a society where individual can desire and live fully regardless of age. Aged is not a state of "have gotten old" but a process of continuously aging.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focuses on women's aging within a boundary of 'normal family' centered on heterosexual marriage. As a result, this study does not deal with the aging of women who exist outside the patriarchal social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on aging must pay attention to not only to women in their 40-50s but also other ages and different contexts.